

인권정보자료실
CPb1.13.1

유서사건 총자료집

I. 수사기록

유서사건 총자료집

I. 수사기록

인권정보자료실
CPb1.13.1

'유서사건' 강기훈씨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유서사건' 강기훈씨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유서사건 총자료집

I
수사기록

유서사건' 강기훈씨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유서사건 총자료집

I
수사기록

'유서사건' 강기훈씨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유서사건 총자료집

I

(수사기록)

1993

「유서사건」 강기훈씨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유서사건 총자료집』 발간을 도와주신,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하는 모임, 대한성공회, 대한성공회 정의실천사제단, 대한예수교장로회 강기훈사건대책위원회, 민족자주통일불교운동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서울민주시민연합,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인권위원회,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김윤수님, 김중희님, 김지영님, 백낙청님, 지선스님께 감사드립니다.

① 아버지, 어머니 -
 어찌이랴입니다.
 많은 이해위를 인양했다는 생각은
 허깨비는 여러가지 의미가 있으나
 생각합니다. 예지껏 한번도 아버지, 어머니에게
 화를 주는 것을 해오지 못했지요.
 하지만 이제 기억이가 아버지의 어머니의 아들이
 아닌 누구의 아들이 라는 선조히-로
 마지막 혼란을 하려 합니다.
 모든 문제는 대체로 시국사에 위임하세요.
 정미라. 신태,이영 등 부속사건은 위임받으세요
 위임하세요. 제불운보다 아끼고 사랑하는
 선배님들입니다.

- 기산 -

유서 회복복사본 12분이상이
 안됨
 민족 항쟁의 정황을 알기

좋은 친구 비록 ~~친구~~ 진실한 세기 크리스마
 못했지만 항상 나의 머릿속에 큰 대용 아들의
 좋은 친구가 되보려 노력했었지. 정말 생각허두게
 살아가 몹시 근다며. 온 첫눈같이 세상에 뻗은 발한수
 없는 비늘이 아니라 자기의 주례로 세상에 뻗을 수 있는
 특별한 능이 내릴것만 같리세.

건강함게서 세상에 뻗을 발한수 있는 주례로 인가이
 폐를 바리며
 소수의 힘에 저
 유익 없자고 탓하
 생각하곤 기쁘게

//

⑥ 호시성 욕심을 버리고 집안에서 ~~한국의~~
 아무도 나치하지 않으며 지면 정복을 위하여 드문아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고 싶네.
 무례한 세상은 그 세대에 더군다나 브리는 세기 처연
 좌절을 지기며 자주는 정복의 신자처 죄고 싶네
 자식을 죽이며 허세를 부리고 서로 적반한 인성은
 살고 싶지는 않리세

이유 보일도 내러 양주르 없어 자식을 희생하
 오려 다른 자들의 수수함을 끊어 살아지고 싶네
 진실한 영혼에서 진실한 생활을 창조해 주려 그런
 이것이 오늘을 사는 세기 되려야 할 기정 이상적인
 자기보유적인 삶의 생각하거네
 하늘을 가리며 ~~우리의 정복의 단검발에 한라부르임없이~~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나의 작은 소망이라세
 옛 세대에 비해 정복을 가리키는 뱀뱀 세대에 큰 손들
 빛나는 사실이던 정복의 무한한 변형이 없거세

친구
 이노레이가 자카지코를 친구며 나의 ~~제왕~~
 브레리아 있지 않았었다.
 자네에게 언더 진실한, 부담없는, 처(은)주려 세기
 죄없는 기 히는 생각에 진실하지 못했던 옛 세기를
 추회하고 있거네. (증정신자 이질적기 세대로)
 과연 세 주례로 사교를 이차한수 앓을 기 하린 조신현에
 걸려진 사사교에 처한히 ~~이제~~ 자기에 겨들
 대개 이질 주례로 사교, 이기함을 기리 분거네

⑧ 내 나의 마음은 ~~내게~~ 내게
 나의 사려깊은 마음이 내게 ~~정복~~ 정복을 선출하였다
 나의 나는 그때마다 타는 때배와 자정물 안고있고.
 깊은 시샘은 서로 공경하여 살아가려는 안되리라
 이때 한수 ~~이름~~ 이름을 깨닫는다.

기운 거기 위루에 이등삼은 갈수록 ~~기운~~ 기운
 기리는 바비 음가라는 거들을 못다. 나는 항상 보신적인 기회
 높은 살아인지 ~~안양나~~ 안양나 ~~세상~~ 세상. 삶이 있어 충실화되
 또한 허무주적인 ~~적의~~ 적의 삶은 되다 오나. ~~친하~~ 친하하하.

⑨ ~~정확한 삶이 사라지~~
 있어서 ~~자유~~ 자유롭고 ~~자~~ 자
 정하나다. ~~몸바람~~ 몸바람이
~~로~~ 로 때때로 ~~없어~~ 없어 ~~나~~ 나

~~아무리~~ ~~아무리~~ ~~아무리~~ ~~아무리~~
~~상하는~~ ~~상하는~~ ~~상하는~~ ~~상하는~~
~~이해하는~~ ~~이해하는~~ ~~이해하는~~ ~~이해하는~~

1만 ~~당신~~ 당신도 ~~자~~ 자 ~~고~~ 고
 은 ~~우리~~ 우리 ~~의~~ 의 ~~로~~ 로 ~~가~~ 가
~~제한~~ 제한이 있는 ~~나~~ 나 ~~의~~ 의 ~~무엇~~ 무엇인가?
~~한~~ 한 ~~확고~~ 확고한 ~~삶~~ 삶의 ~~내부~~ 내부에서 ~~생명의~~ 생명의 ~~목~~ 목은 ~~길이~~ 길이 ~~모~~ 모
~~인~~ 인 ~~인~~ 인 ~~간~~ 간. ~~지~~ 지 ~~해~~ 해 ~~내~~ 내 ~~외~~ 외 ~~로~~ 로 ~~가~~ 가 ~~어~~ 어 ~~가~~ 가 ~~적~~ 적 ~~생~~ 생 ~~의~~ 의 ~~비~~ 비 ~~하~~ 하 ~~사~~ 사 ~~랑~~ 랑 ~~도~~ 도 ~~없~~ 없
~~어~~ 어 ~~찌~~ 찌 ~~어~~ 어 ~~기~~ 기 ~~가~~ 가 ~~나~~ 나 ~~의~~ 의 ~~생~~ 생 ~~의~~ 의 ~~가~~ 가 ~~어~~ 어 ~~무~~ 무 ~~엇~~ 엇 ~~이~~ 이
~~지~~ 지 ~~나~~ 나 ~~로~~ 로 ~~부~~ 부 ~~활~~ 활 ~~기~~ 기 ~~해~~ 해 ~~선~~ 선 ~~지~~ 지 ~~불~~ 불 ~~인~~ 인 ~~도~~ 도 ~~드~~ 드 ~~러~~ 러 ~~지~~ 지
~~고~~ 고 ~~이~~ 이 ~~그~~ 그 ~~양~~ 양 ~~에~~ 에 ~~내~~ 내 ~~생~~ 생 ~~의~~ 의 ~~가~~ 가 ~~어~~ 어 ~~지~~ 지. ~~내~~ 내 ~~자~~ 자 ~~의~~ 의 ~~이~~ 이 ~~로~~ 로 ~~부~~ 부 ~~활~~ 활 ~~의~~ 의 ~~가~~ 가
~~어~~ 어 ~~찌~~ 찌 ~~어~~ 어 ~~기~~ 기 ~~가~~ 가 ~~나~~ 나 ~~의~~ 의 ~~생~~ 생 ~~의~~ 의 ~~가~~ 가 ~~어~~ 어 ~~무~~ 무 ~~엇~~ 엇 ~~이~~ 이
~~가~~ 가 ~~나~~ 나 ~~의~~ 의 ~~생~~ 생 ~~의~~ 의 ~~가~~ 가 ~~어~~ 어 ~~무~~ 무 ~~엇~~ 엇 ~~이~~ 이
~~가~~ 가 ~~나~~ 나 ~~의~~ 의 ~~생~~ 생 ~~의~~ 의 ~~가~~ 가 ~~어~~ 어 ~~무~~ 무 ~~엇~~ 엇 ~~이~~ 이

~~사~~ ~~를~~ ~~선~~ ~~을~~ ~~너~~ ~~다!~~

| name | office | home | name | office | home |
|------|---------------------|------|------|-----------------------------|------|
| 미종진 | 0321 692-7841 | | 김신현 | 741-1761-5 | |
| 최재인 | 967-7149 | | 민현 | 52-7284 | |
| 홍진표 | 859-8291 | | 윤종찬 | 03431 43-2690 | |
| 원수용 | 914-5232 | | 유민재 | 03481 944-4688 | |
| 이인영 | 950-0679 | | 홍성준 | 03461 68-0942-3 462-1021 | |
| 한채익 | 694-2722 | | 김동비 | 504-4484 (동학대) | |
| 양재원 | 616-4718 | | 안혜정 | 386-2726 | |
| 김목인 | 03441 62-5695 | | 미하미하 | 03511 63-0396 | |
| 이현우 | 457-1881 | | 송희진 | 03511 875-6553 | |
| 임문영 | 904-9872 | | 김기현 | 461-6258 | |
| 고미진 | 47-4443 | | 서권석 | 308-1368 | |
| 이현정 | 563-9807 | | 김선래 | 989-3754 | |
| 대우 | 747-1591, 754641 | | 홍대진 | 772-7028 | |
| 홍지민 | 273-8187 | | 원지리안 | 03461 62-3084 | |
| 이정민 | 744-6671, 7271-3050 | | 민기현 | 738-2767 | |
| 이정민 | 278-8828 | | | | |
| 이정민 | 03441 764-93-4 | | | | |

▶ 91년도 전민련 수첩

전전전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성남지회 - 지
 12. 청년들의 빛나는 자살과 뜨거운
 열정만이 조국의 희망을 내일
 만들어 줄 것이다!

새 일부. 민족화해추진연맹 성남지회위원회
 "청년이 시야 좁아져 산다"
 청년학회의 반성을 전한다 축하드립니다.

자주. 민주. 통일. 동양의 기치를 들고
 솟아나 터사랑 청년학회의
 민중해방의 깃발을
 (성남미성민 교선부장-함정영)

영희 해하
 성희 민희 영희 행사원거하
 사회

13. 이 땅의 자주. 민주. 통일의
 최 선봉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 건강 민족민주운동 연담 -
 사회부장 김기현

▶ (좌상) 성남 터사랑창립대회 방명록(1989. 10. 경)
 ▶ (좌하) 전고조 원주지회 개소식 방명록(1991. 3. 23.)
 ▶ (우) 김기현이 송의여전 학생들에게 적어준 메모(김기현의 전민련 수첩을 보며 적어줌. 1991. 4. 경)

14. 1
 김기현 방명록 (4/18)
 - 39.6.7 -

김기현 방명록
 77-1
 11.11.11
 (성남미성민)
 김기현 방명록 (1991. 4. 18)
 김기현 방명록 (1991. 4. 18)
 김기현 방명록 (1991. 4. 18)
 김기현 방명록 (1991. 4. 18)

15. 2
 김기현 (31)
 "주어진 재회 기회에"
 양구이 26.6.25.55.
 "자신은 시인 김기현"
 양구 11시 26.6.25.55.

24. 27. 김기현
 양구이분에게 주. 모친에게 김기현.
 양구 6시 (양구이분)
 김기현 방명록 / 양구이 김기현.
 양구이 (양구이)

26. (음)
 반동양적 북방 정책 추진에
 대항한다.

증제 5 호증

㉞

아버님 · 어머니께

날씨가 계속 더워지고 있음

저는 언제나 그렇듯이 밤

잠 지내고 있습니다. 벌써

벌써 지나가 버린 시간이었지만

입니다. 물론 밖에서 더러워

뿐만 아니라 그 까닭인 여러가지의 귀찮았던 문제들 인해 부모님들이...

더욱 괴로우셨으리라는 것은 생각이 깊은 저 이리만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기대라는 물은 달랐지만, 그동안 여러가지

살고에 관한,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환경에 관한, 가족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해 볼 수 있었던 기회가 리에게는 주어졌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기대도 달리 생각해 보다면 즐거이를 하여 부유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이 되기 보다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산을 조종이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자식을 바라고 계셨으리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세대의 조약한 흐름들에서 벗어나서 같이 휘둘러

버리는 사람이 아닌 주체사람에게 조종의 피라라는 줄이리 애쓰는

그러한 제 자신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당장의 부모님의 조그마한

바람을 저버리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상황 조건이 본의 아니게

마음먹은 바와는 다르게 운덕이 버릴때가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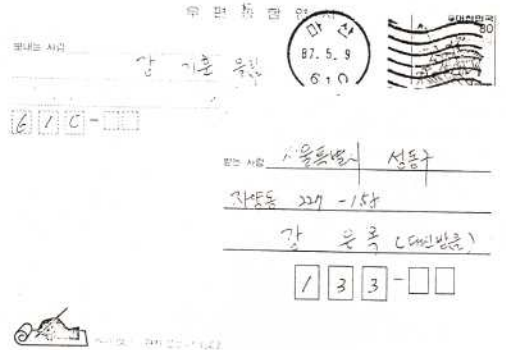
모든것에 대해 자책으로서 용서를 빌면서... 건강 하십시오.

이만 드립니다.

1987 5. 7.

소자 기훈 올림

㉞



㉞

수신: 김정훈 발신: 김 명훈 (이 이름은 동재와 재하 삼촌으로 짐 이른입니다)

대회의사록과 정세문건을 보냈습니다. 의사록이 정황함까지 작성되지 못한 한계로 대회의사록에서 논의되었던 것은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은 동기에서 인쇄했을 때는 지은 한 번 읽어 내어 가면서 전체 맥락은 이해하는 듯한 느낌에 대해 상당부분 익숙(??)이 아니라 유추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지은 대회의사록은 주어진 정황은 중심으로 새롭게 작성하고 있으므로 (물론 1호 등본항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대로 이해되지 못한 부분이나 뒤늦게 하기 힘든 부분은 특히 새롭게 정리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은항 하위항에서 논쟁되었던 부분이 대회의사록도 수행되어 있었음이다. 그러나 이 부분이 불충분하므로 의사록이 정리되기 바랍니다. 논의정황은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지은항은 가능한 정리 하십시오.

- ① Tac 시키 구분에 대한 변경
대회 셋째는 의사록 p16 ~ p17
- ② 현재의 논쟁이었던 것 ~~...~~ 뒤늦게 오아 뒤늦게 정복 (동의를 표현은 받음)
에 관한 논쟁
대회 셋째는 의사록 p 29 ~ p 40 (붙)

참 다음 회합에 필요한 사전 준비

- ① 전 문건 ~~...~~ 체계, 자료, 문건 방식 등도 정리해 새롭게 추가 되어야 하는 번거로운
제고 ~~...~~ 정황 등지가 되고 있는 사실일 수도 어떤 일들은 하위항에 대한 정리도 잘
(어떤까지 해야 하는지 정리 구함) ~~...~~
- ② 전 문건 ~~...~~ 정황 등의 변경사항에 대한 지은의 정리 (물론 지은항도 정리할 필요 있음)
- ③ 지은항 회합에서 해결 되지 못한 논점을 본과 구제해. 풍속화된 항대로
정리해 갖 것 (가장적이면 repo로 올린 것, 본인도 정황해 해서 작성하겠음)
- ④ 가능하면 최재 DJP 정황해로의 par적 의미에 대한 토론 준비

전망에 각별히 신경쓰시고
힘찬 투쟁! 현안 전진은 위해서!!!
- 동리 명훈 -

등사문서입니다

격려사

아직 심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금영균 (대한예수교장로회 강기훈씨사건대책위원회 위원장)

'1991년 봄' 명지대학생 강경대군의 죽음을 둘러싸고 뜨겁게 불타오른 '5월정국'은 수많은 청년들의 분신과 투신으로 이어졌다. 노태우정권은 이러한 상황에서 벼랑으로 몰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른바 '강기훈씨 유서대필사건'을 조작해 냈다. 결국 사건을 조작하려는 검찰과 '그럴 수도 있다'는 식의 이 나라 제도언론들은 한 청년을 흉악한 범죄자인 것처럼 희생시키고 말았다.

우리는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믿기에 과학적인 유서감정 및 필적확인에 최선을 다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6하원칙에도 맞지 않는 엉터리 공소내용을 가지고 온국민을 농락했으며, 이 사건의 재판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각 있는 많은 이들의 비난 속에 진행되었다.

분명히 강기훈씨는 공안통치로 일관하던 6공화국 정권의 최대 희생양이었다. 노정권은 강기훈이라는 희생양을 담보로 위기를 모면했으며 그 희생양은 오늘도 역사의 모순 속에 참담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역사의 물결이 막힐 때마다 훗날 진실이 밝혀져 거짓이 심판 받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다. 하물며 세인이 보기에도 뚜렷한 수백 종류의 물증을 애써 외면한 재판부의 판결이 뒤집힐 날은 멀지 않은 장래에 와 있음을 확인하는 바이다.

이번에 강기훈씨의 검찰 자진출두 2주년을 맞아 이 사건의 진실을 역사에 남기려는 뜻있는 분들의 노력으로 『유서사건 총자료집』을 세상에 내놓는 것은 참으로 소중하고 뜻 깊은 일이 아니라 할 수 없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 『자료집』의 출간이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먼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자료를 가감없이 그대로 남겨 놓음으로 훗날 이 자료를 통해 역사의 진실이 재규명될 수 있음을 믿기 때문이다. 2천년전 예수를 심판한 이들은 권력을 권자들이었으나 그들의 불의한 심판은 한 세대도 못되어 온 세상에 드러났다. 수없이 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아픔을 온 몸으로 감싸안으며 살아온 강기훈씨는 사법부에 의해 짓밟힘을 당한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이 『자료집』이 역사적으로 재평가받는 그때 우리 시대 정의를 위해 싸우다 옥에 갇혔던 이들을 심판했던 자들의 불의가 온 천하에 드러나며 정의로 왔던 이들의 삶이 재평가 될 것이다.

둘째로 이 『자료집』이 출판되어 훗날 이 사건의 진실이 규명될 때 1991년 5월 폭력정권과 맞서 불기등으로 사라져간 김영균, 천세용, 박송희, 김철수, 윤용하, 이정순, 정상순, 이들의 애국애족의 뜻이 숭고하게 부활하리라 믿는다. 다시 한번 이 귀한 『자료집』이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출간됨을 감사드린다.

‘어둠’을 불사르는 ‘진실’의 기록

김 중 배 (한겨레신문 대표이사 사장)

아직도 ‘어둠의 터널’은 끝이 아니다. 민주의 제단에 몸을 던진 김기철의 결연한 죽음, 부추김에 놀아난 꼭두각사의 죽음으로 묻혀 있는 한 ‘어둠의 터널’은 끝일 수 없다. 멀쩡히 태양이 떠 있는 한낮에 ‘유서대필’이라는 망령에 짓눌려 쇠고랑을 찬 강기훈이 유죄인으로 남겨져 있는 한, 절대로 ‘어둠의 터널’은 끝이 아니다. 아무리 태양이 떠 있더라도 그 시대의 이름은 ‘백야(白夜)’일 뿐이다.

권력의 끄나풀 안에 든 한 무리는 강경대의 죽음과 김기철의 죽음과 김귀정의 죽음이 이어지던 그날 ‘죽음을 부추기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고 입을 맞추었다. 강기훈은 그들이 창안하고 그들이 지목한 ‘어둠의 세력’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정작 인간의 존엄을 말살하고, 진실을 허위로 덮고, 또한 양심을 비양심으로 짓눌러버린 ‘어둠의 세력’은 그 누구였던가. 나는 감히 ‘어둠의 세력’이라는 회한한 낱말을 창안한 바로 그 무리들이었다고 말하고자 한다. 그날의 정경이야말로 ‘적반하장’이었음을 고발코자 한다.

한 인간의 죽음과, 한 인간의 원죄를 두고, 어떤 이들은 가볍게 지껄인다. 그것은 공권력과 재야의 싸움이라고 그렇다. 싸움은 공권력과 재야의 대결처럼 전개되었다. 그것이 재야의 도덕성을 먹칠코자 하는 공권력의 노림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따위 관찰은 겉거죽 활기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정치적 사태를 ‘파워게임’ 줌으로만 치부해버리는 상업주의 언론의 타성에 불과하다.

단 한번 뿐인 생명을 어떤 부추김만으로 버릴 수 있는가. 더구나 인간의 인간다운 삶을 열고자 전념해 온 우리의 재야가 인간의 인간다운 생명을 내던지도록 부추길 수 있는가. ‘어둠의 세력’을 떠벌리는 공권력 주변의 인간관이라면, 오히려 죽음의 부추김이 가능했음지도 모른다. 그들은 인간을 도구로 보는 인간관에 오염되어 있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탓이다. 때문에 김기철과 강기훈을 둘러싼 싸움은, ‘인간’과 ‘비인간’의 대결이라고 보는 편이 오히려 적절하다.

‘어둠’을 불사르는 ‘진실’의 기록

김 중 배

김기철의 죽음은 양심을 위한 양심의 죽음이다. 강기훈의 ‘유서대필’ 부인은 양심을 위한 양심의 부인이다. 이름좋은 사법부까지를 포함하는 공권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지순한 양심을 부정하고 유린한다. 필적감정의 판정에서도 권력의 허위를 선택하고 진실을 저버린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허위감정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뒤에도 저들은 전혀 반성의 빛이 없다. 한마디로 김기철과 강기훈을 둘러싼 싸움은 ‘양심’과 ‘비양심’, ‘진실’과 ‘허위’의 대결이라고 보아야 마땅하다.

나는 동아일보 편집국장이었던 시절, “김기철씨 유서 자필 확실” “검찰, 대필주장 후퇴”라는 기사를 1면에 내걸었던 ‘일대오보’ 사건의 편집자였음을 고백한다. 물론 그 기사는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말미암아 움직일 수 없는 ‘오보’로 확정되고 말았다. 그러나 1991년 5월 25일의 그날, 나에게 확신을 토로하던 젊은 기자들의 눈동자를 잊지 못한다.

그뒤 남인의 삶을 살아야 했던 나는 주제넘게도 드레퓀스사건의 진실을 햇볕 아래 드러냈던 에밀 졸라를 떠올렸다. 먼 발치에서나마 그의 뒷꽂무니를 따라가고 싶었던 게, 한때의 정직한 심정이었다. 서준씨와의 깊은 만남도 그 심정의 연장선상에서만 기약될 수 있을 터이다.

그러나 에밀 졸라는 역시 나의 추종을 허락하지 않는 먼 거리에 있었다. 그것이 나의 통탄이며, 또한 나의 자책이다. 어쩌면 이땅의 에밀 졸라가 없었기 때문에 이땅의 드레퓀스는 여전히 ‘어둠의 터널’ 속에 갇혀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의 통탄과 자책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이땅의 에밀 졸라는 자라나고 있었던 것 같다. 그 증거의 본보기가 여기 발간되는 『유서사건 총자료집』이다.

나는 서슴없이 이땅의 에밀 졸라들에게 큰 절을 올린다. 물론 나의 큰 절은 ‘비인간’을 굴복시킨 ‘인간’과 ‘비양심’을 벗겨낸 ‘양심’과 ‘허위’를 빛바래게 한 ‘진실’에 올리는 큰 절이다. 참으로 ‘인간’과 ‘양심’과 ‘진실’이, 저들 ‘어둠의 세력’을 압도해야만 비로서 이땅을 먹칠하는 ‘어둠의 터널’도 끝이 날 터이다.

역사와 국민의 '재심'을 위하여

한 승 현 (변호사)

강기훈군 변호인의 변론서는 그 첫머리부터 명쾌한 이치로 넘쳐 있다.

"... 병석에 누워 있는 사람의 '유언장'을 대필한다는 말은 들어보았지만 자살자의 '유서'를 남이 '대필'하여 준다는 얘기를 우리는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자살을 결심한 사람이 유서를 쓸 능력이 있건 없건 간에, 남에게 유서를 대필하여 달라고 부탁한다면 그는 이미 자살을 포기한 사람이며, '유서는 내가 써줄 테니 빨리 자살하라'고 권유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단순한 자살방조가 아니라 살인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일대 역작으로 평가될만한 그 변론서는 마침내 이렇게 끝을 맺고 있다.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피고인 강기훈의 승리가 아니라 건전한 상식의 승리'입니다. 지금 저 피고인석에 앉아 있어야 할 사람은 강기훈이가 아니라 '공권력의 남용'입니다. 강기훈 피고는 무죄입니다."

재야 각계의 항의와 변호인단의 법정투쟁에도 불구하고 강기훈군은 노정권 타도를 외치며 분신한 김기설군의 유서를 대필해주었다는 누명을 벗지 못한 채 아직도 감옥에 갇혀있다. 강군은 자살방조죄에 어울리지 않게 징역 7년의 구형을 받은 데다가, 판결 또한 어이없게도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되었다.

실정법상으로 말한다면 강군에 대한 재판은 이미 끝났다. 그러나 수사과 재판에 쏟았던 국민의 의혹은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 있으며 그러기에 판결대로 승복하려는 사람은 매우 적다. 그러므로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양심의 심판, 국민의 심판 그리고 역사의 심판을 해야 할 차례가 왔다.

이번에 펴내는 『유서사건 총자료집』은 바로 그 양심의 법정, 국민의 법정, 역사의 법정에 제출되는 심판용 기록이 될 것이다. 결국 이 『유서사건 총자료집』의 독자는 모두가 심판관이 될 수 있고, 또 되어야 한다.

수사기록과 재판기록 그리고 관련자료까지를 이처럼 완벽하게 망라 수록하여 간행하는 예는 적어도 국내에서는 일찍이 없었던 일로 알고 있다. 본신이 하나의 사건이었고 '대필공방'도 엄청난 사건이었듯이 이번과 같은 자료의 집대성, 간행 또한 그 자체로서 엄연한 '사건'으로 기록될 만하다.

독자들은 이 총체적인 기록을 통해서 이왕에 부분이나 단편으로만 알고 있던 의혹, 조작의 진상을 좀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권력이 작심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감옥에 가두고 '죄인'을 만들 수 있다는 그따위 야만을 우리는 묵인해서는 안된다. 거대한 권력 앞에 한 인간의 삶과 존엄이 어이없이 짓밟히는 것은 직접 유린당하는 한 개인의 불행에 그치지 않는다.

일찌기 솔론이 말했듯이, 피해를 입지 않은 자가 피해를 입은 자와 똑같이 분노할 때에만 정의는 살아있는 법이다. 그렇다고 분노의 격정만으로 진실이 소생하는 것은 아니기에 객관적인 기록과 자료에 입각하여 원죄자의 '무죄'를 실증하는 논리적 작업이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간행되는 이 『유서사건 총자료집』이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진실의 승리를 담보한 논리적 실증의 모체가 될 것임을 믿는다. 이제 우리 국민들도 방청객이나 독자의 처지에 머물지 말고, 몸을 일으켜 양심의 심판자로 나서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방대한 간행사업에 심혈을 기울여오신 공동대책위원회 함세웅 위원장과 서준식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당무자 여러분께 삼가 경의를 표하고자 한다.

머 리 말

우리는 왜 『유서사건 총자료집』을 만들었는가?

<유서사건 총자료집>은, 1991년 5월 발생하여 1992년 7월 24일 대법원 확정판결로써 강기훈에게 징역 3년형이 선고된 '자살방조사건'(세칭 '유서사건')에 관한 모든 자료를 집성한 것이다.

"한국의 드레퓌스사건"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했던 이 '유서사건'은 6공 최대의 시국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사건에 의혹을 품으며 공정한 수사,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던 여러 사람들 외에도 적극적으로든 소극적이든 대법원의 판결에 완전히 승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대단히 많았을 것이다.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던 날 언론매체들은 "유서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도했다.

사건 발생 후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유서사건은 분명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시대' 출범에 즈음하여 많은 사람들이 강기훈씨가 사면될 것을 기대했다는 사실에 의해서도 증명되고 있다. 주요 일간지들은 모두 강씨의 석방여부에 비상한 관심을 나타냈으며, 기독교단체들은 "강씨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것은 국민들 모두에게 받아들여 질 수 없는 처사였다"면서 "새정부 아래에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명으로 더 이상 무고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게 해주기를 바라면서 강씨의 석방, 사면을 탄원"했던 것이다.

본 공대위가 강기훈씨 사건의 모든 자료를 망라하는 총 자료집 기획에 착수한 것은 1992년 7월 말, 즉 대법원에서 강기훈씨의 유죄가 확정된 직후였다.

당연한 일로서 이 기획이 "무모하다"는 지적들이 있었으며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런 지적들이 사실이었음을 작업자들은 뼈저리게 실감해야 했다. 그것은 흡사 광활한 벌판을 헤매는 것파도 같이 막막한 작업이었으며, 우리는 재정난으로 세 차례 사무실을 옮길 때마다 조마조마하면서 커다란 문서박스를 짊어지는 고초를 겪어야 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공대위에는 이 작업이 완성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으며, 그 믿음은 다음과 같은 인식을 담고 있었다.

1. 강기훈씨 사건은 단지 강기훈씨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혹은 '재야'와 '공권력'의 대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현대사의 한 단면을 극명하게 상징하는 거짓과 진실, 상식과 편견의 커다란 싸움이었으며 분명 '역사적 사건'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기록은 역사적 기록이 될 것이며, 강기훈씨 사건에 누구보다도 절실한 관심을 기울여온 본 공대위는 이 역사적 기록을 누구나가 쉽게 볼 수 있는 형태로 남길 의무가 있다.
2. 언론매체를 통한 이 사건의 이해란 결국 피상적인 것일 수밖에 없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의혹을 품으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 하고 있다. 사건발생 전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강기훈씨와 많은 참고인들은 어떤 태도로 무슨 말을 했는지, 법정에서 변호인단과 검찰은 어떤 논거로 어떤 주장을 했는지, 그 많은 증인들은 도대체 어떤 증언을 했는지, 본 공대위는 진실을 알고 싶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제시할 의무가 있다.
3. 본 공대위는 강기훈씨의 결백을 확신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제도적 방법에 의하여 강기훈씨의 원죄를 벗길 길이 거의 막히게 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사건에 관한 모든 자료를 국민들의 양식 앞에 공개

함으로써 재판결과에 관계없이 강기훈씨의 사실상의 무죄와 명예회복을 획득해나가는 것밖에 없다는 판단을 한다.

4. 검찰권과 사법권의 독립문제는 우리 사회가 민주화로 가는 길에 놓인 커다란 과제이다. 과거 살벌한 군사독재를 겪은 우리의 검찰과 법원이 정치권력의 이익에 따라 종종 무고한 사람들을 잔인하게 희생시켜 왔음을 거의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본 공대위는 강기훈씨 사건이야말로 가장 첨예하고도 드라마틱하게 검찰과 법원의 독립성 문제를 세상에 제기했다고 확신한다. 바로 이 때문에 강기훈씨 사건의 기록은 널리 공개되어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 검찰권과 사법권 독립성의 현주소를 물어야 한다. 검찰권과 사법권의 독립성은 결코 이들의 '자성'으로써 이룩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양식에 의한 재판감시를 통해서만이 확보되어 가는 것이다.

5. 1991년 5월투쟁의 엄청난 열기 속에서의 유서사건의 발생, 명동성당에서의 긴장감 감도는 대기, 사건의 진상을 둘러싼 검찰과 재야의 불꽃 튀는 공방, 팽팽한 재판과정,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비리사건의 돌출... 그야말로 이 전과정은 하나의 사건이라기보다 한 편의 '드라마'였으며, 이 '드라마'의 재현이라는 의미만으로도 사람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책으로 역어질 가치가 있다.

6. 이 사건의 상세한 기록을 객관적 판단의 도마에 올리고 의혹을 벗기는 일은 6공이 재야세력과 맺은 가장 심각한 문제의 고리를 풀고 대화합을 이루어내는 데 분명 큰 기여를 한다고 믿는다.

이 『유서사건 총자료집』에는 수사기록, 공판조서, 논고문, 변론요지, 판결문, 법원에 제출된 각종 참고자료 등 공식문서는 물론, 이 사건을 보도한 신문기사 1000여점과 이 사건과 관련하여 발표된 각종 성명서류 수십점, 그리고 1992년 2월에 돌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뇌물감정사건에 관한 주요기록까지 망라되어 있다.

강기훈씨는 자살방조죄뿐 아니라 국가보안법으로도 기소되고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당초에 '유서대필'만으로도 공소유지를 자인하며 국가보안법으로는 기소하지 않겠다고 언론에 공언하던 검찰은, 강기훈씨를 구속한 후 조사과정에서 강기훈씨의 결백을 결정적으로 입증할 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전민련 업무일지 문제) '자살방조'수사에 커다란 혼선이 생기자 결국은 기소하는 단계에서 국가보안법을 추가해버린 것이다. 국가보안법 부분은 애당초에 중요한 것은 아니었고 법정에서도 거의 공방이 없었다. 본 공대위는 약 1000여쪽 분량인 이 부분 수사기록을 『유서사건 총자료집』에 수록할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공소장을 제외하고 삭제하였다.

본 공대위는 이 사건 전모를 객관적으로 제시, 보존하는데 최대의 힘을 기울였다. 우리는 객관적 진실이야말로 강기훈씨의 결백함을 밝힐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라는 확고한 믿음과 떼땀함을 가지고 있다.

많은 분들의 성원, 그리고 우리의 눈물과 땀으로 이루어진 이 방대한 자료집은 우리 시대를 상징하는 하나의 중요한 사건의 기록으로서 역사에 남을 것이다.

1993년 6월

'유서사건' 강기훈씨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유서사건 일지

- 1992년 4월 26일 명지대생 강경대 학생이 시위 도중 백골달에 의해 살해됨.
- 4월 27일 연대에서 재야단체는 '고 강경대 열사 살인폭력 규탄과 공안통치 종식을 위한 범국민대회(대책회의)'를 결성.
- 4월 29일 대책회의 주최 제1차 국민대회 열림. 광주에서 박승희 학생 분신.
- 5월 1일 안동대 김영균 학생이 분신함.
- 5월 4일 2차 국민대회 열림. 경원대 천세용 학생 분신.
- 5월 5일 고 김기설, 방통대 동아리 '소리새벽' 회원인 이지혜, 송국영에게 분신 의사를 처음 밝힘.
- 5월 6일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박창수씨 안양병원에서 의문의 죽음.
- 5월 7일 오후 7시 30분경 김기설, 홍성은과 만나 분신 결의를 밝히며 수첩을 건네줌. 오후 9시30분 이지혜는 대책회의 관계자에게 김기설의 분신결의를 전해줌. 곧바로 전민련 관계자들이 김기설을 찾기 시작함. 오후 11시경 북가좌동 임근재는 김기설의 자취방에서 김기설을 만나고 곧 대책회의 이보은이 합류하여 분신 만류.
- 5월 8일 오전 5시 대학로에서 김기설은 같이 있던 임근재와 이보은에게 전화건다고 하며 사라짐. 오전 6시 30분 김기설은 홍성은에게 '열심히 살아라'고 전화하며 신촌 부근이라고 밝힘. 오전 8시 7분 김기설, 서강대 건물 옥상에서 분신한 후 투신. 오전 대통령 비서실장,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따른 분신에 의혹이 많다고 말함. 정구영 검찰총장은 분신에 조직적 배후가 있다, 수사를 벌이겠다하며 검찰에 수사를 지시. 서강대 박홍 총장 '죽음을 선동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 있음. 12시 홍성은, 연세대 대책회의 사무실로 와서 김기설의 수첩을 전달.
- 5월 10일 윤용하, '누가 분신을 배후 조정하던 말인가, 노태우는 퇴진하라'는 말을 남기고 분신.
- 5월 11일 전민련, 검찰이 김기설의 필적을 요구하여 사회국 업무일지를 제출.
- 5월 12일 김기설 장례식. 마석 모란공원에 안치.
- 5월 13일 검찰, 김기설이 근무했던 부대에 가서 필적 입수. 오후 10시 서울지검 강력부, 홍성은 집을 수색하고 홍성은 불법연행(15일 밤 검찰수사관과 잠시 집에 들린 것을 제외하고 17일까지 약 1백시간 동안 불법 수사).
- 5월 15일 검찰, 강기훈의 85년도 경찰에서 작성한 자술서를 필적감정 의뢰함.
- 5월 16일 검찰, 이영미를 강제연행하고 강기훈 집을 수색.
- 5월 17일 검찰, 홍성은 진술에 대해 공판기일전 증거보전 절차 마침.

- 5월 18일 고 강경대 학생 장례식. 이정순씨 분신. 국민일보 강기훈의 유서대필 보도.
- 5월 19일 전민련, 김기설의 수첩을 대책회의 자료함에서 찾음.
- 5월 20일 전민련, 명동성당에서 김기설의 수첩 등 필적에 대해 기자회견. 검찰, 수첩제출 요구 공문을 전민련 사무실에 보냄.
- 5월 21일 김기설이 4월 18일 작성한 메모를 당시 건네받은 송의여전 학생이 공개. 성남 터사랑 청년회에서 김기설의 필적이 있는 방명록 공개. 검찰, 수첩 조작 가능성을 흘림(서울신문, 조선일보 22일 보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25일 감정결과 통보) 검찰, 한겨레신문이 필적을 의뢰한 사설 감정원 입수수색.
- 5월 22일 전교조 강원지부, 3월 23일에 작성된 전교조 원주지회 개소식 방명록의 김기설 필적공개.
- 5월 23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위원회, 검찰에 공개수사 요청.
- 5월 24일 전민련, 김기설 작성의 성남 민청련 상황일지 공개.
- 5월 25일 검찰, 전민련 제출 김기설 수첩이 조작됐다고 발표. 국민대회 도중 성대 김귀정 학생 사망.
- 5월 26일 검찰, 자살방조 혐의로 강기훈의 사전구속영장 신청.
- 5월 30일 KNCC 인권위원회, '김기설씨 분신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 6월 7일 강기훈, 김수환 추기경에게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는 편지 보냄.
- 6월 12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명위, 강기훈 자진출두 권유.
- 6월 15일 KNCC 인권위, 강기훈 '대필 안했다는 심증'이라는 1차 조사결과 발표. 김수환 추기경, 명동성당에 경찰력 투입 반대 표명.
- 6월 18일 성남에서 홍성은 은시처 발견, 취재기자 경찰에 연행.
- 6월 24일 강기훈, '피고인으로서가 아니라 검찰의 부도덕함과 타락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법정에서 서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검찰에 자진 출두.
- 6월 29일 검찰, 서준식 전민련 인권위원장을 보안관찰법 위반으로 구속.
- 7월 2일 검찰, 소위 '유서대필' 배후관련 참고인 14인 전국에 지명수배.
- 7월 1-4일 검찰, 업무일지가 세 사람에게 의해 작성된 것을 알고 임무영을 새로운 대필혐의자로 추적.
- 7월 5일 강기훈 변호인단, 가혹수사 중단 촉구 성명발표.
- 7월 6일 검찰, 전민련 임무영 부장 연행. 대필혐의 아닌 집시법 등으로 구속.
- 7월 12일 검찰, 강기훈을 기소하면서 사건수사 발표.
- 7월 14일 강기훈 후원회 발족.

- 7월 18일 KNOC 인권위원회, 일본인 감정인 오니시의 필적감정결과 발표
- 7월 20일 변호인단, 강기훈 보석신청.
- 8월 2일 법원, 강기훈 보석신청 기각.
- 8월 21일 검찰, 강기훈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
- 8월 28일 강기훈 1차 공판. 변호인단은 모두진술에서 '형사소송법상의 기본원칙조차 무시되고 있는 이 사건 공소는 당연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 강기훈은 모두진술에서 '유서대필 용의자로 몰린 지난 3개월 동안은 본인에게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기였다', '이번 유서대필 사건은 본인을 희생양으로 삼아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현정권의 비열한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다'라고 주장.
- 9월 11일 2차 공판.
- 9월 25일 3차 공판.
- 10월 9일 4차 공판.
- 10월 23일 5차 공판.
- 11월 6일 6차 공판. 홍성은 증인출두 거부.
- 11월 7일 7차 공판. 홍성에는 대한 증인신문에서 자신의 수첩에 쓰여진 메모가 강기훈이 쓰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고 번복.
- 11월 20일 8차 공판. 강기훈 변호인단, 김기설이 3백만원을 빌리고 써준 각서를 증거로 제출.
- 11월 27일 9차 공판. 일본인 감정인 오니시 증인신문.
- 11월 28일 10차 공판. 일본인 오니시 증인신문 계속.
- 12월 4일 11차 공판. 검찰, 강기훈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3년을 구형.
- 12월 14일 서준식, 집행유예로 석방.
- 12월 20일 12차 공판. 재판부,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

- 1992년 2월 9일 MBC,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장 김형영의 뇌물수수과 허위감정 폭로
- 2월 11일 서울형사지방법원, 국과수 감정을 배척하는 첫 판결.
- 2월 17일 검찰, 국과수 김형영 문서분석실장을 뇌물수수혐의로 구속. 허위감정은 없었다고 발표.
- 2월 27일 전국연합 등 재야 12개 단체 '유서사건 강기훈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결성.
- 3월 12일 항소심 첫 공판.
- 3월 26일 항소심 2차 공판.
- 3월 27일 항소심 재판부, 국과수 문서감정에 관한 기록검증.
- 3월 30일 항소심 3차 공판. 구속된 김형영 증인신문.

- 4월 2일 항소심 4차 공판. 홍성은 불출석.
- 4월 9일 항소심 5차 공판. 검찰, 징역 7년에 자격정지 3년을 구형.
- 4월 13일 공대위, 검찰의 필적은폐를 김기설의 군복무 당시 정훈장교인 이찬진 변호사의 제보로 밝힘. 강기훈 변호인단 변론재개신청.
- 4월 15일 공대위, 명동성당 앞에서 '강기훈의 무죄석방과 검찰의 필적은폐 규탄' 집회.
- 4월 16일 박형규 목사 등 각계인사 4백여명은 '강기훈 무죄석방을 위한 4백인 선언' 발표. 김수환 추기경 등 23인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는 서한을 항소심 재판부에 전달.
- 4월 20일 항소심, 강기훈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6월 선고.
- 7월 20일 김대중 민주당 대표, 장올병 성대총장, 김승훈 신부 등 각계인사 2백13명, 공정재판을 촉구하는 서한을 대법원에 제출.
- 서울 고법, 강기훈 이송정지 신청 기각.
- 7월 21일 예장 목회자 공정재판을 위한 금식기도회 개최.
- 7월 24일 대법원, 강기훈 유죄 확정.
- 1993년 1월 19일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강기훈 석방 탄원서를 김영삼 대통령당선자에게 제출.
- 1월 27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인권위, 강기훈 석방 탄원서를 김영삼 대통령당선자에게 제출.
- 2월 6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 김영삼대통령 앞으로 '강기훈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국민들 모두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처사'였기 때문에 강기훈의 사면을 바라는 탄원서 제출.
- 3월 6일 사면석방에 강기훈 제외.
- 5월 23일 석탄일사면에 강기훈 제외.
- 7월 20일 현재 강기훈은 대전교도소에서 복역중.

일 러 두 기

- * 『유서사건 총자료집』에는 정식 「수사기록」과 「공판기록」 뿐만 아니라 당시 각종 매체의 보도자료, 전민련 등을 비롯한 각종 단체의 성명서나 자료 등을 포괄적으로 함께 수록하였다. 단 국가보안법 수사기록과 국과수 피해자들이 항소심에 참고자료로 제출한 각자의 사건기록은 생략하였다.
- * 신문자료는 제 I, II권에 날짜 순서에 따라 수록하였으며, 자료가 많아 동아일보만을 수록하고 다른 신문은 III권에 수록하였다.
- * 각종 단체의 성명서, 수사기록과 공판기록 이외의 참고자료를 제 I, II권에 수록할 시에는 테두리를 둘러 정식 기록과 구별하게 하였다.
- * 각권의 자료는 다음의 순서에 의해 수록하였다.
 - 제I권: 시간순서에 따라 자료를 수록하였다.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검찰측의 수사진행 및 언론의 보도, 전민련을 비롯한 제 단체의 움직임 등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자료번호 예: 가1-1, 가2-1, 가3-1
 - '가'는 '수사기록'을 나타낸다.
 - 두번째 항: '1', '2' '3'은 각기 '검찰측 수사기록', '신문자료', '정식 수사기록 이외의 자료, 각종 성명서류'를 나타낸다.
 - 세번째 항: '1'은 각기 자료들의 순차를 나타낸다.
 - 제II권: 재판 순서에 따라 수록하였다.
 - 자료번호 예: 나1-1, 다1-1, 라1-1
 - 첫번째 항: '나' '다' '라'는 각기 '1심' '항소심' '대법원'을 나타낸다.
 - 두번째 항: 공판순서를 나타낸다. '1'은 '1회 공판'이다. '0'은 각기 1회 공판전 자료
 - 세번째 항: 각기 자료들의 순서이다.
 - 자료번호 예: A-1, B-1
 - 첫번째 항: 'A'=신문자료, 'B'=각종 성명서나 참고자료
 - 두번째 항: 각기 자료들의 순서이다.
 - 제III권: 공판중에 제출된 필적관계 논문, 뇌물감정비리사건 서류검증자료, 각종 신문자료, 각종 회보, 주·월간지 순으로 자료를 수록함.
- * 다음의 경우에는 생략하였다.
 1. 자료로서의 의미가 적은 것(주민등록등초본, 참고인의 집 부근 약도 등).
 2. 같은 내용이 중복된 것(증인선서서, 증인소환장 등).
 3. 복사상태가 안좋아 거의 보이지 않은 것(현장사진, 검증사진 등)

수 사 기 록 차 례

- 수사기록 표지 / 3
- 자료 가-0-1 압수물건총목록 / 4
- 자료 가-0-2 사건기록목록 / 16
- 자료 가-1-1 범죄인지서 / 23
- 자료 가-1-2 수사보고(변사자 김기설 일건수사기록 입수) / 25
- 자료 가-1-3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품신(서면) / 29
- 자료 가-1-4 현장검증조서 / 33
- 자료 가-1-5 검시조서 / 34
- 자료 가-1-6 참고인 진술조서 및 사체검안서 입수보고 / 36
- 자료 가-1-7 압수조서(김기설 유류품) / 40
- 자료 가-1-8 압수수색영장(김기설 본집) / 41
- 자료 가-1-9 압수수색영장(김기설 하숙방) / 42
- 자료 가-1-10 압수수색영장(연대 유류품 소재지) / 42
- 자료 가-1-11 수사보고(주민등록 분실신고서 입수) / 43
- 자료 가-1-12 압수조서(주민등록 분실신고서) / 43
 - 자료 가-2-1 전민련 간부 분실자살(동아일보, 91.5.8) / 45
 - 자료 가-3-1 성명서:고 김기설 동지 분신행거에 대한 입장 / 46
 - 자료 가-3-2 성명서:고 김기설 동지의 분신행거에 대한 검찰의... / 47
 - 자료 가-3-3 성명서: 검찰의 왜곡수사 방침에 대한 전민련의 규탄성명서 / 48
- 자료 가-1-13 진술조서(포장마차 주인 양경숙) / 49
- 자료 가-1-14 진술조서(서강대 교수 윤여덕) / 50
- 자료 가-1-15 진술조서(서강대 교직원 정삼정) / 53
- 자료 가-1-16 진술조서(서강대 교직원 권영호) / 55
- 자료 가-1-17 진술조서(서강대 교직원 송주수) / 56
- 자료 가-1-18 진술조서(서강대 교직원 정재오) / 59
- 자료 가-1-19 진술조서(서강대 교직원 이창욱) / 62
 - 자료 가-2-2 '막연한 소문' 어떻게 밝혀지/'분신패우' 수사(동아, 91.5.9) / 66
 - 자료 가-2-3 승진 김기설씨 주변(동아, 91.5.9) / 67
 - 자료 가-2-4 "육상엔 혼자 있었다"/목격자 진술(동아, 91.5.9) / 68

자료 가-3-4 성명서:정부 및 검찰의 왜곡날조...(법국민대책회의) / 69
 자료 가-3-5 분신을 선동하는 배후세력이 있다니요!!(서강대 사학과 학생회) / 71
 자료 가-1-20 진술조서(장병호) / 72
 자료 가-1-21 압수조서(김기설 유아책자 글씨) / 74
 자료 가-1-22 필적감정의뢰서 / 75
 자료 가-1-23 압수조서(김기설 자취방) / 75
 자료 가-1-24 실황조서(김기설 집 등) / 77
 자료 가-1-25 수사보고(김기설 자취방 수색) / 79
 자료 가-2-5 분신목격자 소환조사(동아, 91.5.10) / 79
 자료 가-1-26 확인서(업무일지 제출) / 80
 자료 가-1-27 압수조서(업무일지) / 85
 자료 가-1-28 수사조서(참고인 주소 확인) / 85
 자료 가-1-29 진술조서(자취방 주인 강병숙) / 86
 자료 가-3-6 고 김기설열사 장례식 안내문 / 88
 자료 가-1-30 필적 동일 여부 감정의뢰 / 93
 자료 가-1-31 감정의뢰(담배꽂초) / 93
 자료 가-1-33 진술조서(이제구) / 94
 자료 가-1-33 수사보고(홍성은 주소지 확인) / 96
 자료 가-1-34 압수조서(홍성은 책) / 96
 자료 가-2-6 김기설씨 장례식(동아, 91.5.13) / 97
 자료 가-1-35 자술서(홍성은, 1회) / 98
 자료 가-1-36 진술조서(홍성은, 2회) / 99
 자료 가-1-37 압수조서(홍성은 제출) / 107
 자료 가-1-38 수사보고(강기훈 진술서 입수) / 109
 자료 가-1-39 압수조서(85년 강기훈 진술서) / 109
 자료 가-1-40 진술서(김문정) / 113
 자료 가-1-41 수사보고(강기훈 학적 등 입수보고) / 116
 자료 가-1-42 자술서(박경민) / 116
 자료 가-1-43 자술서(이지혜) / 122
 자료 가-1-46 자술서(송국영) / 122
 자료 가-1-45 수사보고(참고인 표홍철 등 불출석) / 124
 자료 가-1-46 강기훈 범죄경력조회서 / 124
 자료 가-1-49 필적감정 의뢰 / 126
 자료 가-1-48 필적감정 회보 및 감정서(5월 15일자) / 126
 자료 가-1-49 압수수색영장(강기훈 집) / 153
 자료 가-1-50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강기훈 집) / 154
 자료 가-1-51 압수수색영장(이영미 집) / 159
 자료 가-1-52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이영미 집) / 160
 자료 가-1-51 자술서(홍성은) / 160
 자료 가-1-54 자술서(2)(홍성은) / 163

자료 가-1-55 진술서(이영미) / 163
 자료 가-1-56 필적감정 회보 및 감정서(5월 17일자) / 165
 자료 가-1-57 자술서(홍성은) / 178
 자료 가-1-58 진술조서(홍성은 제2회) / 178
 자료 가-1-59 진술서(이영미) / 183
 자료 가-1-60 강기훈 출국금지요청서 / 186
 자료 나-0-1 홍성은 증거보전신청 재판(1991.5.17.) / 187
 자료 나-0-2 증인신문조서(홍성은, 1991.5.17.) / 188
 자료 가-2-7 타다만 유서의 절규(동아, 91.5.7) / 192
 자료 가-1-61 진술조서(이영미) / 193
 자료 가-2-7 분신 김기설 유서 자필 아닌듯/검찰(동아,91.5.19) / 198
 자료 가-1-62 수사협조 의뢰(김기설 수첩 제출 요구) / 199
 자료 가-1-63 수사보고(참고인 서준식 등 출석요구 불응) / 199
 자료 가-1-64 수사보고(강기훈 출두 소환장 전달) / 200
 자료 가-1-65 수사보고(수사협조 공문 전민련에 전달) / 200
 자료 가-1-66 압수수색영장(중앙인영필적감정원 신찬석) / 200
 자료 가-1-66 진술서(최규성) / 201
 자료 가-1-68 압수조서(김기설 전민련 수첩) / 202
 자료 가-1-69 범죄현장 지문감정 결과 통보 / 202
 자료 가-2-8 강기훈씨 회견 유서대필 사실무근(동아, 91.5.20) / 204
 자료 가-2-9 사실:유서는 누가 썼는지 밝혀라(동아, 91.5.20) / 205
 자료 가-3-7 유서대필 조작 기도에 대한 우리의 입장(전민련, 91.5.20) / 206
 자료 가-1-70 필적감정 의뢰 / 207
 자료 가-1-71 필적감정 의뢰 / 207
 자료 가-1-72 수사협조 의뢰 / 208
 자료 가-1-73 감정의뢰 회보 접수보고(혈액 감정) / 208
 자료 가-1-74 감정의뢰 회보(담배 꽂초) / 210
 자료 가-2-10 「필적,공방/검찰-전민련 맞대결(동아, 91.5.21) / 211
 자료 가-2-11 검찰-전민련 명예 결린 일전(동아, 91.5.21) / 212
 자료 가-3-8 기자회견문(명동성당, 전민련, 91.5.21.) / 213
 자료 가-1-76 진술서(박세용) / 215
 자료 가-1-76 압수조서(김기설 이력서) / 215
 자료 가-2-12 「수첩」수사/검찰·필적 공개/전민련(동아, 91.5.22) / 217
 자료 가-2-13 필적감정 방법과 신뢰도(동아, 91.5.22) / 218
 자료 가-3-9 보도자료(전민련, 91.5.22) / 219
 자료 가-1-77 수사보고(김기설 친구 안혜정이 필적 제공) / 229
 자료 가-1-78 압수조서(김기설 친구 안혜정 제출필적) / 235
 자료 가-1-79 필적감정 의뢰 / 235
 자료 가-1-80 압수수색영장 반환(홍성은) / 235
 자료 가-1-82 수사보고(KNCC 인권위 공문 접수) / 236

- 자료 가-2-15 김씨수첩 필적 곧 판명(동아, 91.5.23) / 238
 자료 가-2-16 해설:검찰-전민련 주장과 쟁점(동아, 91.5.23) / 239
 자료 가-2-17 인터뷰:홍성은(동아, 91.5.23) / 240
 자료 가-3-10 서울지검에 공개수사협조요청서 발송(KNOC, 91.5.23) / 241
 자료 가-3-11 성명서(KNOC, 91.5.23) / 242
 자료 가-1-82 감정의뢰(수첩 절취선 일치여부) / 243
 자료 가-2-18 전민련, 상황일지 유서와 같은 것(동아, 91.5.24) / 244
 자료 가-3-12 ··· 더 이상의 날조조작 중단하고···(전민련, 91.5.24) / 245
 자료 가-1-83 필적감정 의뢰 / 248
 자료 가-1-84 필적 등 감정의뢰 회보서 및 필적감정서(5월 25일 회보) / 248
 자료 가-2-19 김기설씨 유서 자필 확실(동아, 91.5.25) / 279
 자료 가-2-20 김씨본신 「배후주장」은 날조다/방송대 이양(동아, 91.5.25) / 280
 자료 가-3-13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단국대 민주동문회, 91.5.25) / 281
 자료 가-1-85 진술조서(홍성은, 제3회) / 282
 자료 가-1-86 구속영장(강기훈) / 284
 자료 가-2-21 「김씨 수첩조작, 새 쟁점으로(동아, 91.5.26) / 287
 자료 가-1-87 수첩절취선 감정에 대한 보충질의 / 288
 자료 가-1-87 필적감정 의뢰 / 288
 자료 가-1-89 수사보고 / 288
 자료 가-2-20 강기훈씨 사전영장(동아, 91.5.27) / 289
 자료 가-2-23 김기설 둘째매형 “자발적 자살로 보기 어렵다”(동아, 91.5.27) / 290
 자료 가-2-24 수첩 ‘진짜나 가짜나/검찰-전민련 공방(동아, 91.5.27) / 291
 자료 가-3-14 사전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입장(강기훈, 91.5.27) / 292
 자료 가-3-15 강기훈이 써보인 김기설의 유서내용 / 293
 자료 가-3-16 왜곡날조에 대한 정의의 투쟁을 선언한다(전민련, 91.5.27) / 293
 자료 가-3-17 김기설 수첩 내용 주석(전민련, 1991.5.27) / 295
 자료 가-1-90 필적감정 의뢰 / 309
 자료 가-2-25 강씨 강제연행 알기(동아, 91.5.28) / 310
 자료 가-3-18 전민련 논평(1991.5.28) / 311
 자료 가-1-91 필적 등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5월 29일 회보) / 312
 자료 가-2-26 강씨 영장집행 실패/검찰(동아, 91.5.29) / 338
 자료 가-3-19 김수환 추기경에게 보낸 편지(강기훈, 1991.5.29) / 339
 자료 가-2-27 「김씨 수첩도 강씨 필적」/국과수 감정(동아, 91.5.30) / 343
 자료 가-3-20 날조조작의 의도와 대응(전민련, 1991.5.30) / 344
 자료 가-1-92 혈액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 350
 자료 가-2-28 검찰의 분노와 압박(동아, 91.5.31) / 351
 자료 가-2-29 성소로서의 명동성당 (동아, 91.5.31) / 352
 자료 가-3-21 검찰에 협조요청(KNOC, 1991.5.31) / 353
 자료 가-3-22 전민련에 협조요청(KNOC, 1991.6.1) / 354
 자료 가-2-30 제야-운동권 무더기 사전영장(동아, 91.6.5) / 358

- 자료 가-1-93 수사보고(이보은 동행 실패) / 359
 자료 가-2-31 시위주도 제야 88명 검거령(동아, 91.6.7) / 360
 자료 가-2-32 명동성당 내주초에 경찰투입(동아, 91.6.8) / 361
 자료 가-2-33 「대책회의, 투쟁방향 고심(동아, 91.6.9) / 362
 자료 가-3-23 추기경 면담요청서(서준식, 91.6.9) / 363
 자료 가-2-34 명동성당 「긴장의 장」으로(동아, 91.6.10) / 365
 자료 가-2-35 대책회의 명동성당 철수키로(동아, 91.6.11) / 366
 자료 가-2-36 「대책회의, 성당철수 어떻게 하나(동아, 91.6.11) / 367
 자료 가-3-24 공개수사를 촉구하며(천주교 사제단, 91.6.11) / 368
 자료 가-2-37 「검찰 「대필」주장 조작/사제단(동아, 91.6.12) / 370
 자료 가-1-94 진술서(이보령) / 371
 자료 가-1-95 진술서(이보령, 제2회) / 371
 자료 가-1-96 진술서(이보령, 제2회 보충) / 372
 자료 가-1-97 진술서(민수진) / 372
 자료 가-1-98 자술서(최수미) / 376
 자료 가-2-38 강기훈씨 자진출두 권유(동아, 91.6.13) / 378
 자료 가-2-39 강씨는 검찰에 자진 출두하라(동아, 91.6.13) / 379
 자료 가-1-99 진술서(이보령, 3회) / 380
 자료 가-1-100 자술서(민수진, 2회) / 380
 자료 가-1-101 자술서(최수미, 2회) / 381
 자료 가-1-102 자술서(김지연) / 382
 자료 가-2-40 명동성당 「안팎긴장」(동아, 91.6.14) / 384
 자료 가-2-41 명동대치-커지는 충돌 우려(동아, 91.6.14) / 385
 자료 가-2-42 인터뷰(동아, 91.6.15) / 386
 자료 가-2-43 20일 이후 자진출두(동아, 91.6.15) / 386
 자료 가-3-25 김수환 추기경에게 보내는 글(서준식, 91.6.15) / 388
 자료 가-3-26 KNOC 인권위 진상보고서(91.6.15) / 389
 자료 가-3-27 사제단의 대응경위(천주교 사제단 91.6.15) / 420
 자료 가-2-44 「공권력 투입 자제토록」김추기경(동아, 91.6.16) / 421
 자료 가-2-45 명동성당 「강씨만 보호」(동아, 91.6.17) / 422
 자료 가-2-46 강씨 자진출두는...(동아, 91.6.18) / 423
 자료 가-2-47 「성역보호」마감임박 긴장고조(동아, 91.6.19) / 424
 자료 가-2-48 홍양/검경경비속 은신 (동아, 91.6.19) / 425
 자료 가-3-28 천주교 정평위에 보낸 글(서준식, 91.6.19) / 426
 자료 가-2-49 명동성당-국민회의 마찰(동아, 91.6.21) / 427
 자료 가-2-50 「명동대치」-신도 움직임 새국면 (동아, 91.6.21) / 428
 자료 가-1-103 수사보고(임철수 소제파악) / 429
 자료 가-2-51 강씨 「24일 출두」(동아, 91.6.22) / 430
 자료 가-2-52 사목회 평신도사도협(동아, 91.6.22) / 431
 자료 가-1-104 구속통지서(강기훈) / 432

- 자료 가-1-107 자술서(강기훈) / 433
 자료 가-1-106 수사보고(방수연 탐문) / 438
 자료 가-1-107 수사보고(이지혜 소재파악) / 438
 자료 가-1-110 수사보고(김진수 탐문) / 439
 자료 가-1-109 수사보고(김현수 탐문) / 439
 자료 가-1-110 수사보고(임무영 검거 실패) / 440
 자료 가-1-111 수사보고(이보은 동행불능) / 440
 자료 가-1-112 수사보고(김선택 임의동행 실패) / 440
 자료 가-1-115 수사보고(원순용 탐문수사) / 441
 자료 가-1-114 수사보고(최재인 탐문수사) / 441
 자료 가-1-115 수사보고(표홍철 검거실패) / 442
 자료 가-1-116 수사보고(임근재 탐문) / 442
 자료 가-1-117 자술서(이 정) / 443
 자료 가-1-118 진술조서(이 정) / 444
 자료 가-2-53 강씨 오늘 구속수감(동아, 91.6.24) / 445
 자료 가-2-54 사실:유서의혹 공정하게 가려라(동아, 91.6.24) / 449
 자료 가-2-55 「대필」-「결백」공방 장기화될 듯(동아, 91.6.24) / 450
 자료 가-3-29 성명사:자진출두에 즈음하여(강기훈, 91.6.24) / 451
 자료 가-1-119 수사보고(임무영 소재파악) / 453
 자료 가-1-120 수사보고(임모 탐문) / 453
 자료 가-1-121 피의자 신문조사(강기훈) / 453
 자료 가-2-56 「유서대필」수사 처음부터 난항 (동아, 91.6.25) / 461
 자료 가-1-122 피의자 신문조사(강기훈 제2회) / 462
 자료 가-2-57 "검찰 허위진술 강요"/승의여전 3명 (동아, 91.6.26) / 464
 자료 가-3-30 검찰은 피의자 권리를 존중하라(변호인단, 91.6.24) / 465
 자료 가-1-123 수사보고(이종원 동행보고) / 466
 자료 가-1-124 진술서(이종원) / 466
 자료 가-1-127 필적 감정 의뢰(강력23110-016452) / 467
 자료 가-1-126 수사보고(강기훈 변호인 접견) / 468
 자료 가-2-58 강기훈씨-후배 3차례 만났다 (동아, 91.6.27) / 468
 자료 가-1-129 수사보고(이보은 탐문) / 469
 자료 가-1-128 수사보고(장준호 탐문) / 469
 자료 가-1-131 수사보고(장준호 탐문) / 470
 자료 가-1-130 진술서(강기훈) / 470
 자료 가-2-59 "김씨자필 입증문건 검찰에 내겠다"/강씨(동아, 91.6.28) / 475
 자료 가-1-131 수사보고(최재인 임의동행 실패) / 476
 자료 가-1-132 피의자 신문조서(강기훈 제3회) / 476
 자료 가-2-60 수감 서준식씨 유서관련 조사(동아, 91.6.30) / 482
 자료 가-2-61 충들없이 끝난 「농성42일」(동아, 91.6.30) / 483
 자료 가-1-133 피의자 신문조서(강기훈 제4회) / 484

- 자료 가-1-134 수사보고(임무영 검거 실패) / 486
 자료 가-1-135 수사보고(임근재 탐문) / 486
 자료 가-2-61 수첩 메모, 필적감정 의뢰(동아, 91.7.2) / 487
 자료 가-3-31 강제연행을 즉각 중지하라!(전민련, 91.7.2) / 488
 자료 가-1-136 자술서(이보은) / 489
 자료 가-1-139 진술조서(이보은) / 492
 자료 가-1-138 진술서(김병희) / 496
 자료 가-1-139 진술조서(김병희) / 498
 자료 가-1-140 피의자 신문조서(강기훈 제5회) / 500
 자료 가-2-62 「유서대필」수사 10일째 제자리(동아, 91.7.3) / 504
 자료 가-1-143 진술서(김형민) / 505
 자료 가-1-144 진술서(김형민, 제2회) / 507
 자료 가-1-145 자술서(정윤서) / 508
 자료 가-1-146 진술서(김현수) / 510
 자료 가-1-147 진술조서(김현수) / 513
 자료 가-1-148 진술서(이동진) / 515
 자료 가-1-147 자술서(강기훈) / 519
 자료 가-1-150 필적감정 회보 및 감정서(91.7.4) / 520
 자료 가-2-63 명동성당과 유서사건(동아, 91.7.7) / 541
 자료 가-2-64 강씨 "유서 대필갈다"(동아, 91.7.8) / 542
 자료 가-1-149 진술조서(임무영) / 543
 자료 가-1-150 피의자 신문조서(강기훈, 제6회) / 545
 자료 가-1-151 수사보고(거짓말탐지기 실시 동의 여부) / 551
 자료 가-2-65 검찰 「유서대필」수사 혼선(동아, 91.7.9) / 552
 자료 가-1-152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 확인) / 553
 자료 가-2-66 강씨 12일 기소(동아, 91.7.10) / 554
 자료 가-3-32 검찰기소에 즈음하여(KNCC 인권위 91.7.10) / 555
 자료 가-1-153 피의자 신문조서(강기훈, 제7회) / 556
 자료 가-1-154 자술서(최재인) / 559
 자료 가-1-155 진술조서(최재인) / 560
 자료 가-2-67 강씨 「자살방조」기소(동아, 91.7.12) / 565
 자료 가-2-68 강기훈씨 기소 무엇이 문제인가(동아, 91.7.12) / 566
 자료 가-3-33 강기훈 자살방조사건 조사결과(검찰, 91.7) / 567
 자료 가-3-34 구속기소에 대한 입장(전민련, 91.7.13) / 572
 자료 가-3-35 오니시 요시오 필적감정 결과(91.7.18) / 574
 자료 가-1-156 진술서(전현철) / 623
 자료 가-1-157 진술조서(전현철) / 623
 자료 가-3-36 필적감정결과 설명회(KNCC 91.7.22) / 626
 자료 가-1-158 진술서(곽대순) / 627
 자료 가-1-159 진술조서(곽대순) / 627

수사기록

서울지방검찰청

구공판 수사기록

| | | | | | |
|-------|--|------|------|---|---|
| | 사건번호 91년형제46779호 | 사건번호 | 년고합계 | 단 | 호 |
| 검 관 | 검 사 신상규 | 비 인 | 관 사 | | |
| 피 고 인 | 구속 강기훈(姜基勳) (일명: 이현우, 김정훈, 상수, 상우) | | | | |
| 죄 명 | 자살방조 | | | | |
| 공소제기일 | 1991 . 7 . 12 | | | | |
| 구 속 | 1991 . 6 . 24 석 방 19 | | | | |
| 변 호 인 | 변호사: 유현석외 14명 | | | | |
| 증 거 물 | 있 음 | | | | |
| 비 고 | 동시 문서입니다 | | | | |

청구인: 대미인 (비호인: 박대린)
 1991년 7월 30일 1665호
 봉지번호 110 서울우체국 3300원
 서울형사지방법원
 법원 주재 취조인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기록

사건번호: 91년 형제46779호
 검 사: 신상규
 피 고 인: 강기훈(姜基勳) (일명: 이현우, 김정훈, 상수, 상우) 구속

죄 명: 자살방조
 공소제기일: 1991년 7월 12일
 구속일: 1991년 6월 24일
 변호인: 유현석 외 14명
 증거물: 있음

☐자료 가-0-11

| 압수물건총목록 | | | | |
|----------|---------------------------|-------|------------|-----|
| 증제 번호 | 물 건 | 수 량 | 압수목 특정수 | 비 고 |
| 1-1 | 곤색 양복상의(미조사 제품) | 1점 | 87 | |
| 1-2 | 모나미볼펜 | 1점 | " | |
| 1-3 | 88담배 | 1점 | " | |
| 1-4 | 5,000원권 지폐 | 1장 | " | |
| 1-5 | 100원권 동전 | 2개 | " | |
| 1-6 | 유서 | 2장 | " | |
| 1-7 | 신나통 | 2개 | " | 27 |
| 1-8 | 안경(다리 1개는 파손된 상태임) | 1점 | " | |
| 1-9 | 손목시계(로고스카르체 제품) | 1점 | " | |
| 1-10 | 58. 한겨레신문 4판 1부(1면부터 16면) | 4판 1부 | " | |
| 1-11 | 갈색구두(불에 탄 상태임) | 1켤레 | " | |
| 1-12 | 가스라이터 | 1개 | 88 | |
| 1-13 | 마스크 | 1점 | " | |
| 1-14 | 형집조각(불에 탄 상태임) | 1점 | " | |
| 1-15 | 박클 | 1점 | " | |
| 1-16 | 88담배(반갑) | 1점 | " | |
| 1-17 | 일일찾집 티켓 | 2매 | " | |
| 1-18 | 500원짜리 동전 | 2점 | " | |
| 1-19 | 100원짜리 동전 | 1개 | " | |
| 2-1 | 주민등록증분실신고서(김기설) | 1장 | 93 | 44 |
| 3-1 | 책표지(김기설의 필적) | 2매 | 175 | 74 |
| 4-1 | 실천문학책 | 1권 | 179 | |
| 4-2 | 토대상부구조론 입문 | 1권 | " | |
| 4-3 | 90년 민족민주운동의 평가와 91년 전망 | 1권 | " | |
| 4-4 | 복악대동놀이 | 1권 | " | |
| 4-5 | 파업전야 | 1권 | " | |

1) 수사기록 원본 「비고」란에 「유서사건 중 자료집」의 쪽수를 기재한다.

| 압수물건총목록 | | | | |
|----------|----------------------------|-----|------------|-----|
| 증제 번호 | 물 건 | 수 량 | 압수목 특정수 | 비 고 |
| 4-6 | 90년 전국대위원회의 자료 | 1권 | 179 | |
| 4-7 | 91년 임금인상 투쟁지침서 | 1권 | " | |
| 4-8 | 나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 1권 | " | |
| 4-9 | 카톨릭 청년문화예술합동단체의 나아갈 길 | 1권 | " | |
| 4-10 | 카톨릭 청년운동과 신앙운동 | 1권 | " | |
| 4-11 | 제2차 바다칸공의회와 청년 | 1권 | " | |
| 4-12 | 사회주의 배신인가 새로운 혁명인가 | 1권 | 180 | |
| 4-13 | 항전별곡 | 1권 | " | |
| 4-14 | 지역과 노동 | 1권 | " | |
| 4-15 | 한국사회 통일전선논쟁 | 1권 | " | |
| 4-16 | 한국노동운동 20년의 결산과 전망 | 1권 | " | |
| 4-17 | 노동법 해설 | 1권 | " | |
| 4-18 | 제주민중항쟁 II | 1권 | " | |
| 4-19 | 80년대 민족민주운동 | 1권 | " | |
| 4-20 | 불세비키당과 그 조직 | 1권 | " | |
| 4-21 |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 | 1권 | " | |
| 4-22 | 전진하는 동지여 | 1권 | " | |
| 4-23 | 상반기 민생투쟁방향수집과 민중연대를 위한 토론회 | 1권 | 181 | |
| 4-24 | 민주연합 | 1권 | " | |
| 4-25 | 중국공산당사 | 1권 | " | |
| 4-26 | 현실과 과학 | 1권 | " | |
| 4-27 | 한국사회와 변혁이론 연구 | 1권 | " | |
| 4-28 | 사상운동 | 1권 | " | |
| 4-29 | 이야기 파라독스 | 1권 | " | |
| 4-30 | 노동자의 철학 | 1권 | " | |
| 4-31 | 현정세와 지방자치제 | 1권 | " | |
| 4-32 | 벼는 결코 자기 땅을 물려서지 않는다 | 1권 | " | |

압수물건총목록

| 증제 번호 | 물 건 | 수 량 | 압수목 특정수 | 비 고 |
|----------|--------------------------|-----|------------|-----|
| 4-33 | 지자제와 민중의 진출 | 1권 | 181 | |
| 4-34 | 사랑의 무기 | 1권 | 182 | |
| 4-35 | 민족민주운동의 전진을 위하여 | 1권 | " | |
| 4-36 | 무장봉기 | 1권 | " | |
| 4-37 | 민주연합 | 1권 | " | |
| 4-38 | 전태일 | 1권 | " | |
| 4-39 | 선진노동자의 이름으로 | 1권 | " | |
| 4-40 | 혁명의 이론과 역사적 경험 | 1권 | " | |
| 4-41 | 노동자의 당의 이론과 조직 | 1권 | " | |
| 4-42 | 한국사회성격논의의 재조명 | 1권 | " | |
| 4-43 | 사회주의자의 실천 1 | 1권 | " | |
| 4-44 | 고백 | 1권 | " | |
| 4-45 | 새벽 | 1권 | 183 | |
| 4-46 | 정치경제학 교과서 | 1권 | " | |
| 4-47 | 오늘 썸바귀꽃으로 살아 | 1권 | " | |
| 4-48 | 동향과 전망 | 1권 | " | |
| 4-49 | 민주연합 | 1권 | " | |
| 4-50 | 제국주의론 | 1권 | " | |
| 4-51 | 80년대 후반 교육운동사 | 1권 | " | |
| 4-52 | 자본축의 91년 임투대책 | 1권 | " | |
| 4-53 | 자료모음 2 | 1권 | " | |
| 4-54 | 지방자치제와 민중생활 | 1권 | " | |
| 4-55 | 민주주의혁명에서의 사회민주주의의 두가지 전술 | 1권 | " | |
| 4-56 | 민주연합 | 1권 | 184 | |
| 4-57 | 95년을 통일의 원년으로 | 1권 | " | |
| 4-58 | 마르크시즘과 민족해방운동 | 1권 | " | |
| 4-59 | 페레스트로이카논쟁 | 1권 | " | |

압수물건총목록

| 증제 번호 | 물 건 | 수 량 | 압수목 특정수 | 비 고 |
|----------|--------------------------------|-----|------------|-----|
| 4-60 | 우리 사랑이란 이름으로 만날 때 | 1권 | 184 | |
| 4-61 | 레닌과 러시아혁명 | 1권 | " | |
| 4-62 | 프로레타리아독재와 민중연합전력 | 1권 | " | |
| 4-63 | 민족자본가 논쟁 | 1권 | " | |
| 4-64 | 민자당의 내각제 파동과 야권통합의 실패 그 의미와 대응 | 1권 | " | |
| 4-65 | 민족자주화 운동론 2 | 1권 | " | |
| 4-66 | 우리 함께 살자 | 1권 | " | |
| 4-67 | 한국의 민주화와 선거문화 | 1권 | 185 | |
| 4-68 | 민중문학과 민족현실 | 1권 | " | |
| 4-69 | 전략과 전술 | 1권 | " | |
| 4-70 | 역사적 유물론 | 1권 | " | |
| 4-71 | 변증법적 유물론 | 1권 | " | |
| 4-72 | 가슴으로 만난 평양 | 1권 | " | |
| 4-73 | 돌담 너머 태양은 떠오르고 | 1권 | " | |
| 4-74 | 사랑의 조건 | 1권 | " | |
| 4-75 | 노동동맹과 농민문제 | 1권 | " | |
| 4-76 | 현실과 과학 | 1권 | " | |
| 4-77 | 새로운 상황 새로운 준비 | 1권 | " | |
| 4-78 | 혁명이론 입문 | 1권 | 186 | |
| 4-79 | 사업보고 | 1권 | " | |
| 4-80 | 백두에서 한라까지 | 1권 | " | |
| 4-81 | 민주화의 길 | 1권 | " | |
| 4-82 | 사회주의 배신인가 새로운 혁명인가 | 1권 | " | |
| 4-83 | 보고서 | 1권 | " | |
| 4-84 | 사회주의 배신인가 새로운 혁명인가 | 1권 | " | |
| 4-85 | " | 1권 | " | |
| 4-86 | 민주연합 | 1권 | " | |

압수물건총목록

| 증제 번호 | 물 건 | 수 량 | 압수목 특정수 | 비 고 |
|----------|---------------------------|--------|------------|--------|
| 4-87 | 창작과 비평 | 1권 | 186 | |
| 4-88 | 일어사전 | 1권 | " | |
| 4-89 | 영어사전 | 1권 | " | |
| 4-90 | 노트(영어 정근택) | 1권 | 187 | 639 |
| 4-91 | 결의문 | 1권 | " | |
| 4-92 | 통일문화제 사업계획서 | 1권 | " | |
| 4-93 | 범민족대회 실무회담을 위해 평양으로 출발하면서 | 1권 | " | |
| 4-94 | 유인물 복사본 | 1권 | " | |
| 4-95 | 남한 경제사 | 1권 | " | |
| 4-96 | 노동운동 | 1권 | " | |
| 4-97 | " | 1권 | " | |
| 4-98 | 노트 | 1권 | " | |
| 4-99 | 사노맹 사건의 전모 복사본 | 1권 | " | |
| 4-100 | 기자회견 자료 | 1권 | 188 | |
| 4-101 | 원진레이온 직업병 참사의 의미 | 1권 | " | |
| 4-102 | 전민련 신문 | 3부 | " | |
| 4-103 | 범민족대회 | 1권 | " | |
| 4-104 | 일간신문(한겨레, 조선, 중앙, 동아) | 8부 | " | |
| 4-105 | " | 4부 | " | |
| 4-106 | 사진 | 23매 | " | |
| 4-107 | 담배꽂초(썬키스트 파인애플 통속) | 31개 | " | |
| 4-108 | 담배꽂초(해태빈우유팩 통속) | 9개 | " | |
| 4-109 | 카드 | 1매 | " | |
| 4-110 | 국민종합통장(장준호) | 1권 | " | |
| 4-111 | 적색도장(박근대) | 1개 | 189 | |
| 4-112 | 녹음테이프(저 평등의 땅에) | 1개 | " | |
| 4-113 | 녹음테이프(송창식) | 1개 | " | |

압수물건총목록

| 증제 번호 | 물 건 | 수 량 | 압수목 특정수 | 비 고 |
|----------|--------------------------|--------|------------|--------|
| 4-114 | 녹음테이프(핀폴리오 리사이틀) | 1개 | 189 | |
| 4-115 | 녹음테이프(내용불상) | 2개 | " | |
| 4-116 | 녹음테이프(해방의 노래) | 1개 | " | |
| 4-117 | 소형성냥(이태원 가든) | 1개 | " | |
| 4-118 | 소형성냥(브라질 농부) | 1개 | " | |
| 4-119 | 육군 군복상의(장준용) | 1점 | " | |
| 4-120 | 육군 군복상의(장준호) | 1점 | " | |
| 4-121 | 육군 군복상의(김기철) | 1점 | " | |
| 4-122 | 신사복 상의(김문웅) | 1점 | 190 | |
| 4-123 | 곤색 추리닝 하의 | 1점 | " | |
| 4-124 | 밤색 슬리퍼 | 2켤레 | " | |
| 5-1 | 업무일지 | 1권 | 217 | 81 |
| 6-1 | 정치위기의 본질과 민주세력의 과제 | 1권 | 245 | |
| 7-1 | 조국은 하나 | 1권 | 268 | 640 |
| 7-2 | 메모지 | 2장 | " | 105 |
| 8-1 | 서울지검 북부지청 85형제 43084호 기록 | 1권 | 276 | 109 |
| 9-1 | 수신:김정훈 발신:김명훈 | 1매 | 380 | 652 |
| 9-2 | 문장의 목적 | 1매 | " | |
| 9-3 | 서대협 지지성명서 | 1매 | " | |
| 9-4 | 폭행건 - 태림사(성적유린) | 1매 | " | |
| 9-5 | "민중시대" 11호 평가보고서 | 1매 | " | |
| 9-6 | 수강신청서(84년 3학년 1학기) | 1매 | " | 653 |
| 9-7 | 시·시조 모음집 | 1권 | " | |
| 9-8 | 위험(낙서) | 1권 | " | 654 |
| 9-9 | 수강노트(화학과 3년) | 1권 | " | 656 |
| 9-10 | 사투의 의의 | 4매 | " | 660 |
| 9-11 | 팜프렛(조성만 추모 100일제) | 9매 | " | |

압수물건총목록

| 증제 번호 | 물 건 | 수 량 | 압수목 특정수 | 비 고 |
|----------|-------------------------|--------|------------|--------|
| 9-12 | 진정한 노동형제의 벗 · 민중의당 등 | 38매 | 381 | |
| 9-13 | 민중시대 등(88.2.26.) | 1묶음 | " | |
| 9-14 | 회로정리집 | 1권 | " | |
| 9-15 | 영어단어집 | 1권 | " | |
| 9-16 | what is chap 2 | 9매 | " | 662 |
| 9-17 | 현재의 정세와 하반기 방향 | 5매 | " | |
| 9-18 | 수강노트(양론) | 1권 | " | |
| 9-19 | 노트(성수중학교 3학년) | 1권 | " | |
| 9-20 | 노트(폴리) | 1권 | " | |
| 9-21 | 노동자의 길 | 1권 | " | |
| 9-22 | 도서열람증 | 1매 | " | |
| 9-23 | 자주·민주·통일 수첩 | 1권 | 382 | 666 |
| 9-24 | 일터에서 90 | 1권 | " | |
| 9-25 | 전화수첩 | 2권 | " | 668 |
| 9-26 | 학생증 | 1권 | " | |
| 9-27 | 전국노동자총단결 테이프 | 1개 | " | |
| 9-28 | 영어 씨브노트 | 1권 | " | |
| 9-29 |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가(강혁) | 1권 | " | |
| 9-30 | 노동해방문학(89.10월호) | 1권 | " | |
| 9-31 | 노동해방문학(89.11월호) | 1권 | " | |
| 9-32 | 중국민족해방운동과 통일전선의 역사(김계일) | 1권 | " | |
| 9-33 | 역사와 사회(84.9월호) | 1권 | " | |
| 9-34 | 한국사회의 계급연구(김진균) | 1권 | 383 | |
| 9-35 | 사회구성체론과 사회과학방법론 | 1권 | " | |
| 9-36 | 고르바초프 페레스트로이카(고병식 역) | 1권 | " | |
| 9-37 | 세계노동운동사 1 (정동철 역) | 1권 | " | |
| 9-38 | 호지명(성원편집부 역) | 1권 | " | |

압수물건총목록

| 증제 번호 | 물 건 | 수 량 | 압수목 특정수 | 비 고 |
|----------|----------------------------|--------|------------|--------|
| 9-39 | 루카치(정혜선 역) | 1권 | 383 | |
| 9-40 | 국가계급사회운동(김학노 외) | 1권 | " | |
| 9-41 | 아리랑 2 | 1권 | " | |
| 9-42 | 세계노동운동약사(백원담 역) | 1권 | " | |
| 9-43 | 자본주의란 무엇인가(김부리 역) | 1권 | " | |
| 9-44 | 제국주의와 신제국주의 | 1권 | " | |
| 9-45 | 그룹노동조합협의의 연구 | 1권 | 384 | |
| 9-46 | 중국민족해방운동과 통일전선의 역사 2 | 1권 | " | |
| 9-47 | 노동해방문학 89년 6·7호 | 1권 | " | |
| 9-48 | 세계노동운동사 2 (정동철 역) | 1권 | " | |
| 9-49 | 스탈린전집(서중권 역) | 1권 | " | |
| 9-50 | 쿠바혁명사(레오휴비마 외 1저) | 1권 | " | |
| 9-51 | 계급분석의 기초이론(박준식 외) | 1권 | " | |
| 9-52 | 단결과 전진 1,2호 합본 | 1권 | " | |
| 9-53 | 현대유물론의 기본과제 | 1권 | " | |
| 9-54 | 국가와 혁명(김영철 역) | 1권 | " | |
| 9-55 | 볼셰비키와 러시아혁명 1 (황인명 역) | 1권 | " | |
| 9-56 | 임금인상투쟁지침서(백산서당) | 1권 | 385 | |
| 9-57 | 사회민주주의의 두가지 전술(오영민 역) | 1권 | " | |
| 9-58 | 한걸음 앞으로 두걸음 뒤로(조자민 역) | 1권 | " | |
| 9-59 | 내디딤(28호) | 1권 | " | |
| 9-60 | 폭력·부정선거를 딛고 일어나 | 1묶음 | " | |
| 9-61 | 공장에서 전국으로 전진하는 노동운동(전노협 편) | 1권 | " | |
| 9-62 | 6월 민주화대투쟁(민중사) | 1권 | " | |
| 9-63 | 국가독점자본주의론(조민 역) | 1권 | " | |
| 9-64 | 주체사상 비판(이진경 역) | 1권 | " | |
| 9-65 | 중국현대혁명사 | 1권 | " | |

압수물건총목록

| 증제 번호 | 물 건 | 수 량 | 압수목 특정수 | 비 고 |
|----------|----------------------------|--------|------------|--------|
| 9-66 | 민주경제(허드슨 저) | 1권 | 385 | |
| 9-67 | 노동해방문학(89.9월호) | 1권 | 386 | |
| 9-68 | 대학 일본어교본(박양근저) | 1권 | " | |
| 9-69 | 모택동 사상연구 1 | 1권 | " | |
| 9-70 | 식민지 반봉건사회론(장시원 역) | 1권 | " | |
| 9-71 | 민주구국의 길(김대중) | 1권 | " | |
| 9-72 | 노동조합운동의 올바른 발전을 위하여(한중구 역) | 1권 | " | |
| 9-73 | 녹두서평 3 | 1권 | " | |
| 9-74 | 대통령선거법령집(1987. 선관위) | 1권 | " | |
| 9-75 | 샤르트르와의 계약결혼(이석봉 역) | 1권 | " | |
| 9-76 | 러시아혁명사(한국올림편집부 역) | 1권 | " | |
| 9-77 | 노동계급 창간호 | 1권 | " | |
| 9-78 | 노동계급 3호 | 1권 | 387 | |
| 9-79 | 노동자의 길 제37호 | 1권 | " | |
| 9-80 | 노동자의 길 제39호 | 1권 | " | |
| 9-81 | 노동자의 깃발 22호 | 1권 | " | |
| 9-82 | 노동운동(89.9.) | 1권 | " | |
| 9-83 | 고르바초프 페레스트로이카(신인철) | 1권 | " | |
| 9-84 | 귀중한 은혜 | 1권 | " | |
| 9-85 | 노동자의 길 38호 | 1권 | " | |
| 9-86 | 러시아 막스주의(이성혁 역) | 1권 | " | |
| 9-87 | 노동해방문학(89.8월호) | 1권 | " | |
| 9-88 | 돈황제(백시중) | 1권 | " | |
| 9-89 | 교양도서목록(세계기획구성) | 1권 | 388 | |
| 9-90 | 주체사상비판 2 (이진경 역) | 1권 | " | |
| 9-91 | 들불 창간호 | 1권 | " | |
| 9-92 | 안양독서회보 5호 | 1권 | " | |

압수물건총목록

| 증제 번호 | 물 건 | 수 량 | 압수목 특정수 | 비 고 |
|----------|------------------------|--------|------------|--------|
| 9-93 | 안양독서회보 4호 | 1권 | 388 | |
| 9-94 | 안노회보 2호 | 1권 | " | |
| 9-95 | 노동자의 진실 비판 | 1권 | " | |
| 9-96 | 혁명주의자의 항의 | 1권 | " | |
| 9-97 | 노동자의 진실 | 1권 | " | |
| 9-98 | 혁명의 불꽃 2,3,4호 | 1권 | " | |
| 9-99 | 자료모음 | 1권 | " | |
| 9-100 | 혁명의 불꽃 10호 | 1권 | 389 | |
| 9-101 | 혁명의 불꽃 8호 | 1권 | " | |
| 9-102 | 노동자의 깃발 16호 | 1권 | " | |
| 9-103 | 혁명의 불꽃 10호 | 1권 | " | |
| 9-104 | 혁명의 불꽃 (44년 5월 22일) | 1권 | " | |
| 9-105 | 가정통신카드 | 2매 | " | |
| 9-106 | 왜 우리는 선봉그룹에서 분리선언을 하는가 | 1권 | " | |
| 9-107 | 실험무기화학(제퍼리파스 저) | 1권 | " | |
| 9-108 | 미로(상) | 1권 | " | |
| 9-109 | " (하) | 1권 | " | |
| 9-110 | 명함(박정수 외 3) | 4매 | " | |
| 9-111 | 재건대회 의사록 (1) | 1매 | 390 | 702 |
| 9-112 | " (2) | 1매 | " | |
| 9-113 | " (3) | 1매 | " | |
| 9-114 | " (4) | 1매 | " | |
| 9-115 | " (5) | 1매 | " | |
| 9-116 | " (6) | 1매 | " | |
| 9-117 | 생일축하카드 | 1권 | " | 706 |
| 9-118 | 노동자의 길 41호 | 1권 | " | |
| 9-119 | 노동계급 4호 | 1권 | " | |

압수물건총목록

| 증제 번호 | 물 건 | 수 량 | 압수목 특정수 | 비 고 |
|----------|---------------------|--------|------------|--------|
| 9-120 | 노동자의 길 40 | 1권 | 390 | |
| 9-121 | 우리 운동의 페레스트로이카 | 1권 | " | |
| 9-122 | 현시기 우리의 전략적 관계 | 1권 | 391 | |
| 9-123 | 혁명주의의 깃발을 높이들자 | 1권 | " | |
| 9-124 | 영등포 울구 재선거 참여투쟁을 | 1권 | " | |
| 9-125 | 6월 이후의 정치정세와 통일 등 | 1묶음 | " | |
| 9-126 | Two Tac | 13장 | " | 712 |
| 9-127 | 신나통 | 1개 | " | |
| 9-128 | 디젤통(알콜통 포함) | 1개 | " | |
| 10-1 | 이력서(김기설 작성) | 1매 | 498 | |
| 11-1 | 수첩 | 1권 | 504 | 717 |
| 12-1 | "엔엘의 정치노선" 유인물 복사본 | 1부 | 395 | |
| 12-2 | "피디의 정치노선" 유인물 복사본 | 1부 | " | |
| 12-3 | "시에이의 정치노선" 유인물 복사본 | 1부 | " | |
| 12-4 | 단국 민주동우회 회원카드 | 8매 | " | |
| 12-5 | 대학노트 | 1권 | " | 777 |
| 12-6 | 알림종이 | 1부 | " | 782 |
| 12-7 | 운영위원회 모집공고 | 1부 | " | |
| 12-8 | 사무회 회의 | 1부 | " | |
| 12-9 | 분단토론 | 1부 | " | |
| 13-1 | 연말카드 | 1매 | 526 | |
| 13-2 | 편지 | 1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가-0-2

사건기록목록

| 서 류 표 목 | 성 명 | 정 수 | 「총자료집」 쪽수 |
|-------------------------|--------|--------|--------------|
| 범죄인지서 | 강기훈 | 1 | 23 |
| 수사보고(변사자 김기설 일건수사기록 입수) | " | 5 | 25 |
| 변사사건발생 및 수사보고 | | 6 | 25 |
| 목격자-정삼정 진술조서 | | 9 | 25 |
| 유서사본 | 김기설 | 18 | 27 |
| 투신자살 현장 사진 다수 | " | 20 | 생략 |
|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품신 | " | 36 | 29 |
| 사망진단서 | " | 39 | 33 |
| 주민등록증 사본 | " | 45 | 생략 |
| 현장검증조서(사진) | | 46 | 34 |
| 검시조서 | | | 34 |
| 참고인 진술조서 및 사체검안서 입수보고 | | 66 | 36 |
| 진술조서 | 김정열 | 67 | 36 |
| " | 임근재 | 72 | 38 |
| 사망진단서 | 김기설 | 85 | 중복 |
| 압수조서 | " | 86 | 40 |
| 압수목록 | | 87 | 40 |
| 수사보고(주민등록 분실신고서 입수) | 김기설 | 89 | 43 |
| 압수조서 | " | 91 | 43 |
| 압수목록 | " | 93 | 43 |
| 진술조서 | 양경숙 | 94 | 49 |
| " | 윤여덕 | 102 | 50 |
| " | 정삼정 | 113 | 53 |
| " | 권영호 | 121 | 55 |
| " | 송주수 | 126 | 56 |
| " | 정재오 | 136 | 59 |

| 사건 기록 목록 | | | |
|-------------------------|-----------|-----|---------------|
| 서 류 표 목 | 성 명 | 정 수 | 『총자료집』 쪽 수 |
| 진술조서 | 이 창 욱 | 146 | 62 |
| 압수수색영장 | 김 기 설 | 160 | 40 |
| " | " | 162 | 41 |
| " | " | 164 | 42 |
| 진술조서 | 장 병 호 | 166 | 72 |
| 압수조서 | | 174 | 74 |
| 압수목록 | 장 병 호 | 175 | 74 |
| 필적 동일 여부 감정의회 | 김 기 설 | 177 | 75 |
| 압수조서 | " | 178 | 75 |
| 압수목록 | " | 179 | 76 |
| 실황조서(김기설의 집 등) | " | 191 | 77 |
| 수사보고(동아일보 신문 사본) | | 208 | 45 |
| 확인서(업무일지 사본) | 서 준 식 | 211 | 81 |
| 압수조서 | " | 216 | 85 |
| 압수목록 | 서 준 식 | 217 | 80 |
| 수사보고(참고인인 서강대학교 재학생 주소) | 김선태 외 5 | 218 | 85 |
| 진술조서 | 강 병 숙 | 219 | 86 |
| 필적 동일 여부 감정의회 | 김 기 설 | 228 | 93 |
| 감정의회(담배꽂초) | | 229 | 93 |
| 진술조서 | 이 재 구 | 230 | 94 |
| 수사보고(주소지 확인) | 홍 성 은 | 240 | 96 |
| 압수조서 | 홍성은(주민등록) | 244 | 96 |
| 압수목록 | 홍 성 은 | 245 | 97 |
| 진술서 | " | 246 | 98 |
| 진술조서 | " | 248 | 99 |
| 주민등록증 사본 | " | 265 | 생략 |
| 압수조서 | " | 267 | 107 |

| 사건 기록 목록 | | | |
|-----------------------------------|-------------------------|---------|---------------|
| 서 류 표 목 | 성 명 | 정 수 | 『총자료집』 쪽 수 |
| 압수목록 | 홍 성 은 | 268 | 107 |
| 수사보고(북부지청 85형제 43084호 폭력행위 등 강기훈) | | 270 | 108 |
| 진술서 사본 | 강 기 훈 | 271 | 108 |
| 압수조서 | | 275 | 108 |
| 압수목록 | | 276 | 108 |
| 진술서 | 김 문 정 | 277 | 113 |
| 수사보고(강기훈 학적부 등 사본압수보고) | | 291 | 116 |
| 진술서 | 김 기 설 | 296 | 생략 |
| 학생증 사본 | " | 300 | 생략 |
| 자술서 | 박 경 민 | 302 | 116 |
| 자술서 | 이 지 혜 | 325 | 122 |
| 자술서 | 송 국 영 | 332 | 123 |
| 수사보고(참고인 출석요구서) | 표홍철, 박석일, 주철수, 허남춘, 문성만 | 337-347 | 124 |
| 필적동일여부감정의회 | | 349 | 126 |
| 압수수색영장 | 강 기 훈 | 350 | 153 |
| 필적 감정의회 회보 | | 352 | 126 |
| 압수조서 | 강 기 훈 | 379 | 154 |
| 압수목록 | " | 380 | 154 |
| 압수수색영장 | 이 영 미 | 392 | 159 |
| 압수조서 | " | 394 | 160 |
| 압수목록 | " | 395 | 160 |
| 자술서 | 홍 성 은 | 396 | 160 |
| 자술서(2회) | " | 403 | 163 |
| 진술서 | 이 영 미 | 404 | 163 |
| 필적감정의회 회보 | | 409 | 165 |
| 자술서 | 홍 성 은 | 422 | 178 |
| 진술조서(2회) | " | 425 | 178 |

| 사건 기록 목록 | | | |
|------------------------------|----------------------------|-----|---------------|
| 서 류 표 목 | 성 명 | 정 수 | 『총자료집』 쪽 수 |
| 진술서 | 이 영 미 | 442 | 183 |
| 출국금지 요청 | 강 기 훈 | 453 | 186 |
| 진술조서 | 이 영 미 | 454 | 193 |
| 수사협조의뢰 | | 472 | 199 |
| 수사보고(참고인 출석요구서) | 서준식, 김선택, 김진수, 장준호, 임근재 | 473 | 199 |
| 수사보고(소환장 전달) | 강 기 훈 | 489 | 200 |
| 수사보고(공문접수) | | 490 | 200 |
| 압수수색영장 | 신 찬 석 | 492 | 200 |
| 진술서 | 최 규 성 | 494 | 201 |
| 압수조서(이력서) | 김 기 설 | 497 | 215 |
| 압수목록 | | 498 | 215 |
| 범죄현장 지문감정 결과 통보 | | 499 | 202 |
| 압수조서 | 김 기 설 | 502 | 202 |
| 압수목록 | | 504 | 203 |
| 필적동일여부 감정의뢰(유서, 강기훈 필적) | | 505 | 207 |
| " (김기설, 강기훈 필적) | | 506 | 207 |
| 수사협조의뢰(명동교회 주임신부 조순창) | | 507 | 208 |
| 감정의뢰 접수 수사보고(혈액채취) | | 508 | 208 |
| 감정의뢰 회보 | | 513 | 210 |
| 진술서 | 박 세 용 | 515 | 215 |
| 이력서 | 김 기 설 | 517 | 215 |
| 수사보고(년말카드 사본, 편지) | " | 518 | 229 |
| 압수조서 | 안 혜 정 | 525 | 235 |
| 압수목록 | " | 526 | 235 |
| 필적동일 여부 감정의뢰 | | 527 | 235 |
| 압수수색영장 반환 | | 528 | 235 |
| 수사보고(김기설씨 유서에 관한 공개수사 협조 요청) | | 532 | 236 |

| 사건 기록 목록 | | | |
|---------------------------|---------|-----|---------------|
| 서 류 표 목 | 성 명 | 정 수 | 『총자료집』 쪽 수 |
| 필적동일 여부 감정의뢰 | | 534 | 243 |
| 문서절취선 일치 여부 | | 535 | 243 |
| 필적 등 감정의뢰 회보 | | 536 | 248 |
| (감 정 서) | | 537 | 249 |
| (사 진) | | 541 | 252 |
| 진술조서(3회) | 홍 성 은 | 566 | 282 |
| 범죄경력조회 | 강 기 훈 | 579 | 124 |
| 문서절취선 일치 여부 감정결과에 대한 보충질의 | | 580 | 288 |
| 필적 동일 여부 감정의뢰 | | 581 | 288 |
| 수사보고(강기훈 기자회견) | | 582 | 288 |
| 필적 동일 여부 감정의뢰 | | 584 | 309 |
| 필적 등 감정의뢰 회보 | | 585 | 312 |
| 감정의뢰 회보 | | 591 | 350 |
| 수사보고(주민등록표) | 이 보 은 | 593 | 359 |
| 진술서 | 이 보 령 | 596 | 371 |
| 진술서(2회) | " | 600 | 371 |
| 자술서 | 민 수 진 | 604 | 372 |
| " | 최 수 미 | 615 | 376 |
| 진술서(3회) | 이 보 령 | 621 | 380 |
| 자술서(2회) | 민 수 진 | 623 | 380 |
| 자술서(2회) | 최 수 미 | 627 | 381 |
| 진술서 | 김 지 연 | 629 | 382 |
| 수사보고(주민등록표 등) | 임 철 수 | 633 | 429 |
| 구속영장 | 강 기 훈 | 637 | 284 |
| 구속통지서 | " | 641 | 432 |
| 변호인 선임신고서 | 유현석외 14 | 642 | 433 |
| 자술서 | 강 기 훈 | 647 | 433 |

| 사건 기록 목록 | | | |
|----------------|---------|-------|---------------|
| 서 류 표 목 | 성 명 | 정 수 | 『총자료집』 쪽 수 |
| 수사보고 | 방수연 | 674 | 438 |
| 수사보고 | 이지혜 | 676 | 438 |
| " (주민등록표) | 김진수 | 677 | 439 |
| " " | 김현수 | 681 | 439 |
| 수사보고 | 임무영 | 684 | 440 |
| " | " | 686 | |
| " | 이보은 | 688 | 440 |
| " | 김선택 | 689 | 440 |
| " | 원순용 | 693 | 441 |
| " | 최재인 | 696 | 441 |
| " | 표홍철 | 701 | 442 |
| " | 임근재 | 704 | 442 |
| 진술서 | 이정 | 708-1 | 443 |
| 진술조서 | " | 708-5 | 444 |
| 수사보고 | | 709 | 453 |
| 피의자 신문조서 | 강기훈 | 710 | 453 |
| " (2회) | " | 730 | 462 |
| 수사보고 | 이종원 | 737 | 466 |
| 자술서 | 이종원 | 740 | 467 |
| 필적 동일 여부 감정 의뢰 | | 745 | 468 |
| 수사보고(변호인 접견) | 박재승 외 5 | 746 | 468 |
| 수사보고 | 이보은 | 748 | 469 |
| " | 장준호 | 749 | 469 |
| " | " | 752 | 470 |
| 진술서 | 강기훈 | 756 | 470 |
| 수사보고 | 최재인 | 759 | 476 |
| 피의자 신문조서 (3회) | 강기훈 | 760 | 476 |

| 사건 기록 목록 | | | |
|--------------------|----------|-------|---------------|
| 서 류 표 목 | 성 명 | 정 수 | 『총자료집』 쪽 수 |
| 피의자 신문조서 (4회) | 강기훈 | 778 | 484 |
| 수사보고 | 임무영 | 783 | 486 |
| 수사보고(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 임근재, 임종호 | 785 | 486 |
| 자술서 | 이보은 | 804 | 489 |
| 진술조서 | " | 817 | 492 |
| 진술서 | 김병희 | 829 | 496 |
| 진술조서 | " | 837 | 498 |
| 구속기간 연장 결정 | 강기훈 | 845-1 | II책 30쪽 |
| 피의자 신문조서 (5회) | " | 846 | 500 |
| 진술서 | 김형민 | 855 | 505 |
| " (2회) | " | 864 | 507 |
| 자술서 | 정윤서 | 873 | 508 |
| 진술서 | 김현수 | 884 | 510 |
| 진술조서 | " | 907 | 513 |
| 각서 | " | 916 | 생략 |
| 진술서 | 이동진 | 917 | 515 |
| 자술서 | 강기훈 | 930 | 519 |
| 필적감정의뢰 회보 | | 934 | 520 |
| 진술조서 | 임무영 | 955 | 543 |
| 피의자 신문조서 (6회) | 강기훈 | 963 | 545 |
| 수사보고(거짓말탐지기 검사 여부) | " | 981 | 551 |
| 수사보고(형기종료 일자 확인) | " | 982 | 553 |
| 피의자 신문조서 (7회) | " | 983 | 556 |
| 자술서 | 최재인 | 993 | 559 |
| 진술조서 | " | 999 | 560 |
| 진술서 | 전현철 | 1014 | 623 |
| 진술조서 | " | 1018 | 623 |

(5) 노란색 1회용 가스라이터가 투신지점 옆 쪽에 있는 건물 옆 배란다형태로 돌출된 부분 위에 빈채로 놓여져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가스라이터를 사용하여 분신한 것으로 추정됨(사진 6 참조).

(6) 동 건물이 층당 높이는 약 3.5미터이므로 투신 지점에서 추락지점까지의 높이는 약 16.5미터임.

다. 기타 상황

(1) 변사자는 추락 후 즉시 병원에 이송되어 사체는 현장에 없었음.

(2) 변사자의 유서발견은 최초 발견한 성명 미상의 학생이 변사자의 상의 안쪽호주머니에서 꺼내 열람한 후 뒤따라 투신지점으로 올라온 동 대학 총장 박홍에게 인계하였으나 위 박홍이 다시 동 대학 학생 회장 표홍철에게 인계하였음.

(3) 변사자의 유류품은 현장검증 후 수사관 제자와 학생회측이 공동수거하였으나 학생회측이 변사자의 유서내용에 따라 비대위의 지시에 따라야겠다고 주장하며 이의 인도를 거부하여 검증 당시 압수치 못하였음.

(4) 옥상으로 통하기 위해서는 1층 본관 출입문을 통하여 4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간 다음 옥상으로 통하는 철제출입문을 열고, 전술한 알루미늄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방법 외에는 없고, 위 철제출입문은 여닫이식 2쪽 문으로 좌측은 고정되어 있고 우측은 열쇠를 사용하여 시정장치를 푼 다음 열도록 되어 있음.

5. 목격자 등 관계자 진술

- 정삼정(서강대 부총장 운전기사)

당일 오전 08:05경 부총장을 출근시키기 위하여 정문에서 본관쪽으로 올라가던 중 투신지점에서 약 100미터 지점 상거한 곳에서 투신자가 건물옥상 모서리에 올라서서 '노태우 정권퇴진'이라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고 손을 들더니 전신에 불이 붙고, 투신하는 것을 보고 추락지점으로 달려가 부총장 승용차에 투신자를 태워 후송조치하였다고 진술.

- 정재오(서강대 수위장)

당일 사고소식을 듣고 출근하여 서강대 총장 박홍

과 함께 08:30경 본관 건물 4층 옥상으로 올라갔더니 학생 등 3-4명이 옥상에 미리 올라와 있었고, 투신자의 양복상의에서 유서를 발견하여 총장이 소지하여 내려가고 현장을 보존하게 한 뒤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을 살펴보니 시정장치가 된 채 열려 있어 의아하게 생각하고 곧바로 문을 걸어 잠그고 내려왔다가 옥상에 학생들이 우왕좌왕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올라갔는지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옥상으로 갔더니 출입문이 아까와 같은 상태로 열려 있어 의아하게 생각하고 그곳에 있던 학생들에게 어떻게 올라왔느냐고 문의하였던 바 '발로 차니 열리더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

6. 검증 의견

목격자 정삼정 등의 진술, 건물의 높이, 추락지점 및 유류품의 상태 등을 종합하면 변사자는 신나통을 들고 투신장소로 올라와 신나를 몸에 붓고 불을 붙인 다음 투신하여 사망한 것으로 일응 추정됨.

1991. 5. 8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박경순

검사 윤석만

검사 박상도

검찰주사보 임영근

*현장 약도, 현장 사진 <생략> (수사기록 54~61)

☐자료 가-1-5 (수사기록 62~65)

검시조서

1991. 5. 8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신상규는 검찰주사 신인섭을 참여하게 하고 다음의 변사자에 대하여 이를 검시하다.

0. 변사자 인정사항

성명 김기철(金基堯)

주민등록번호

성별 및 연령 남, 25세
직업 전민련 사회부장
주거 경기도

본적 경기도

0. 변사 장소

서울 마포구 신수동 소재 서강대학교 본관 5층 건물 앞길

0. 검시 장소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소재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영안실

0. 사체의 모양 및 상황

신장 162센티 가량이고 왜소한 체격임. 코에 출혈흔적이 있고 양귀에 피가 고여 있으며, 신체의 80% 가량이 3도 화상을 입음. 펜티 착용부분인 아래배 및 엉덩이 부위, 등부위, 발부위 등은 화상을 입지 않음. 어깨로부터 15센티 하방에 위치한 우상완부에 3x1센티, 1.5x1센티 가량의 열창, 허리뼈로부터 19센티 하방에 위치한 우대퇴부에 3x2센티 가량의 열창을 각 입었고, 엑스레이 촬영결과 전두골 함몰골절, 후두골 및 측두골 선상골절, 골반골절, 양측견갑골골절, 우측대퇴골골절, 대퇴부장골골절, 좌측대퇴골경부골절, 우측상완골골절, 우측요골두골절, 우측요척골원위부골절 등 신체 11부위에 골절상을 입음.

*신원 확인키 위하여 10 지문 채취

0. 변사 년월일

1991.5.8 08:05경 서울 마포구 신수동 소재 서강대학교 본관 5층 건물앞 아스팔트 바다

0. 발견일시 및 발견자

0. 의사의 검사

연세 의대 세브란스병원 응급실 차장 일반외과 전문의 김승호(金承鎬) 엑스레이 10매 가량 촬영, 혈액

약 30씨시 채취(10씨시는 비대위측 보관)

0. 관계인의 진술

0. 유대품 및 유류품

서강대 총학생회에서 강경대비대위측에 인계하여 동 비대위측으로부터 인수한 유류품은

- 끈색양복상의 1점(미조사 제품)
- 우측 안 호주머니에 모나미볼펜 1점
- 좌측 밖 호주머니에 88담배 1갑, 5,000원권 지폐 1매, 100원권 동전 4개
- 유서 2장
- 신나통 2개(1개는 신나가 약간 들어 있고, 다른 1개는 신나가 가득 들어 있음)
- 안경 1점
- 손목시계 1점(로고스 카르체 제품)
- 5.8자 한겨레신문 4판 1부(1면부터 16면까지)
- 불에 탄 갈색구두 1켤레
- 노란색 가스라이터 1개
- 마스크 1점
- 바지가 타다남은 것으로 보이는 형질조각 1점
- 박클 1점
- 88담배 반갑
- 일일찾집 티켓 2매(그중 1매는 혈흔이 묻음)
- 500원권 동전 2개, 100원권 동전 1개

0. 사인

- 선행사인 : 전신화상, 골절상
- 중간선행사인 : 전두부함몰골절, 골반골절
- 직접사인 : 두개강내출혈, 골반강내출혈(추정)

0. 사체의 처리

0. 참여인

변사자의 부 김경열
김기철비대위 위원장 신창균
강경대비대위 집행위원장 이수호
전민련 인권위원장 서준식

전민련 인권위원 인재근
 강경대 비대위 공동대표 한상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민호
 민족사진연구소 임석현
 마포경찰서 형사계 순경 박춘환
 " 경장 최영낙
 연합통신 기자 1명
 중앙일보 기자 1명
 당청 강력부 검사 신상규
 " 검사 송명석
 " 검찰주사 신인섭

0. 검사의 의견

위 검사는 1991. 5. 8. 16:40에 시작하여 1991. 5. 8. 17:50에 끝나다.

1991. 5. 8.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신상규
 검찰주사 신인섭

☐자료 가-1-6 (수사기록 66~85)

서울지방검찰청

수신 검사 송명석 91. 5. 8.
 제목 참고인 진술조서 및 사체검안서 입수보고

명에 의하여 변사자 김기설에 대한 변사사건에 관하여 유족(부) 김정열 친구 임근재에 대한 각 진술조서를 마포경찰서 형사과 순경 박춘환, 경장 최영락으로부터 입수하였기 첨부 보고합니다.

첨 부 : 1. 진술조서(김정열) 1부.
 2. 진술조서(임근재) 1부. 끝.

1991. 5. 8.
 검찰주사 김 성 수

진술조서

본 적 경기도
 주 거 경기도

주민등록번호
 성 명 김 정 열 (56세)
 직 업 한성패션 공원
 전화번호 (회사)

위의 사람은 김기설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1991년 5월 8일 세브란스병원 1층 회의실에서 다음과 같이 입의로 진술하다.

1. 저는 주민등록상 위 주거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살고 있는 주거지는 서울 성북구 성수동 2번지에 가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1. 저는 오늘 12시 거의 다되서 안양에 사는 큰사위 김종선(37세)으로부터 제 아들 김기설이 죽었다고 하며 세브란스병원 영안실로 오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곧바로 올라왔는데 약 2-3시경에 도착하여 검사님이 검시를 할 당시에 저의 아들 시신을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 사실에 대하여 경찰에서 필요하시다면 사실대로 진술하겠습니다.

이때 위 진술내용을 더욱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입의로 문답하다.

문 : 진술인이 처음 아들의 시체를 확인하였을 때 바로 진술인의 아들이라고 보았는지요

답 : 예. 제 아들이 틀림없습니다.

문 : 변사자인 김기설이는 진술인과 같이 살고 있었나요

답 : 기설이는 중학교 다닐 때까지는 저하고 같이 살았는데 그후 안양에 사는 누나 김화자(35세)의 집에서 학교를 다녔으며 수도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에 입대하여 약 3년 전에 제대하여서는 어디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연락이 되지 않았으나 기설이가 2-3달에 한번 정도 저를 찾아왔으며 최근에 15일전에 집에

와서 하룻밤 잠을 자고 간 사실이 있습니다.

문 : 최근에 김기설이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요

답 : 어느 출판사에서 일을 하며 먹고 자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문 : 마지막으로 기설이가 집에 왔을 때 어떤 고민이나 의심을 할 만한 행동을 보았나요

답 : 그저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집에 와서 잠이나 자고 가는 정도 외는 다른 사항이 없었습니다.

문 : 진술인이 사위로부터 처음 연락을 받을 당시 왜 아들이 죽었다고 말을 하지 않았는지요

답 : 어딘지는 얘기 않고 투신자살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문 : 아들 김기설이가 자살할 만한 이유가 있나요

답 : 평소 말이 없는 편으로 활동하기 좋아하나 자살을 할 만한 이유는 잘 모르겠으며 저희가 가정의 경제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자살할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문 : 진술인이 변사자의 사체를 목격한 바에 의하면 그 상태가 어떠한가요

답 : 불에 탄 것 같으나 얼굴만 자세히 확인하고 다른 것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문 : 진술인의 가족관계를 말하십시오

답 : 예. 처 이광옥 49세, 장녀 김화자 35세(출가), 2녀 화경 32세(출가), 3녀 화용 30세(출가), 아들 김기설 27세.

문 : 진술인은 아들 김기설이가 사망한 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답 :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문 : 그러면 변사자의 사인을 밝히고자 부검을 원하는가요

답 : 주변 얘기를 들어볼 때 제 아들이 자살을 한 것이 확실한 것 같으며 제가 확인한 이상 부검을 원치 않습니다.

문 : 변사자의 평소에 친구관계나 활동사항을 아는가요

답 : 모르지요

문 : 음주관계나 혈액형을 말하십시오

답 : 혈액형은 에이형인지 오형인지 모르겠으며 술은 먹는데 얼마만큼 먹는지 모르겠습니다.

문 : 진술인은 김기설이 죽은 데 대하여 다른 의문 사항이 없는가요

답 : 제가 지금 이런지 저런지 정황이 없습니다.

문 : 진술인은 김기설이가 투신자살하였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들었는지요

답 : 이곳에 와서 여러 사람한테 들었는데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문 : 김기설이가 어느 출판사에 있었는지 또는 다른 전민련이나 재야단체에서 일을 하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저는 제 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모르며 마지막에 왔을 때 원진레이온에 갔다왔었다고 했는데 왜 갔었는지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 : 장례는 어떻게 치를 예정인가요

답 : 그것은 가족과 상의를 해 봐야겠습니다.

문 : 이상 진술내용이 사실인가요

답 : 예 사실입니다.

문 : 다른 하실 말씀이 있나요

답 : 없습니다.

문 : 아들의 유서를 읽어보았나요

답 : 예 부모에게 죄송하다고 하고 보람된 죽음을 원하기 때문에 죽는다고 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위 진술내용을 진술인에게 읽어 준 바 오기나 중감 변경할 사항이 없다고 말하므로 서명날인케 하다.

1991. 5. 8

진술인 김 정 열

마 포 경 찰 서

사범경찰리

경 장 최 영 락

진술조서(참고인)

본 적 강원도
 주 거 서울시
 주민등록번호
 성 명 임근재 (당27세)
 직 업 전국청년단체 대표자협의회 기획부장
 전화번호 (E

위의 사람은 김기설에 대한 변사사건에 관하여 1991년 5월 8일 세브란스병원 1층 회의실에서 다음과 같이 임의로 진술하다.

1. 저는 현재 서울시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있는 134번 중점 부근에서 죽은 김기설 장준호와 같이 살면서 전국청년단체 대표자협의회 기획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오늘 갑자기 김기설이가 분신자살한 사건에 대해 물으시면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위 진술내용을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의 문답하다.

문 : 진술인이 죽은 김기설, 장준호와 같이 살고 있다고 말하였지요

답 : 그렇습니다.

문 : 언제부터 같이 살게 되었나요

답 :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약 1개월 전부터 함께 살고 있습니다.

문 : 진술인 등이 살고 있는 집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요

답 : 보증금 100만원을 내고 월 10만원씩 내면서 월 세로 살고 있는데 방세는 3명이 똑같이 나누어서 내도록 하였는데 현재까지 한번도 내본 적은 없습니다.

문 : 그러면 진술인과 김기설과의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어떤 관계인지 말하십시오.

답 : 김기설이는 전민련 사회국에서 사회부장으로 있었고 저는 전청 간사를 하면서 알게 되었으며 그 시기는 약 5-6개월 전에 알게 된 것으로 특별한 관계는 아니고 그냥 알게 된 사이입니다.

문 : 평소 김기설과는 친한 사이였으며 평소 어떠한 말도 주고 받는 처지였나요

답 : 말은 상호 놓지 않더라도 허물없이 말을 하며 어울리고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문 : 김기설이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

답 : 예, 알고 있습니다.

문 :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요

답 : 1991. 5. 8. 09:00경 서강대에서 분신자살 등의 얘기가 나와 서강대로 달려가서 알게 되었습니다.

문 : 김기설과 최후 만난 시간은 언제인가요

답 : 1991. 5. 8. 05:30경에 종로구 동승동에 있는 대학로에서 헤어졌습니다.

문 : 당시 김기설과 대학로에서 새벽까지 무엇을 하며 보냈는가요

답 : 1991. 5. 7. 21:55경에 강경대 폭행치사사건 비상대책위원회의 부대변인 임무영으로부터 신촌에 있는 민주화운동직장청년연합 사무실인 전화 324-1553으로 전화가 왔는데 급한 일이 있으니 빨리 비대위 사무실로 오라고 하여 22:00가 좀 넘어서 왔는데 기설이가 혹시 일을 저지르지 모르겠다고 하며 빨리 찾아 보라고 해서 일단 자취방으로 가보니 잔 흔적은 있었으나 사람이 없어 잠깐 일을 보고 있는 사이 기설이가 올라왔습니다.

문 : 그래서 어떻게 하였나요

답 : 오랜만에 만났으니 밖에 나가서 술이나 한잔 하자고 하면서 집앞 횡단보도 앞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작은 병으로 맥주 12병을 먹었습니다.

문 : 당시 술을 먹으면서 어떤 얘기를 하였나요

답 : 일을 저지르려고 하느냐는 얘기를 물어볼 수가 없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문 : 그러면 당시 김기설이는 분신자살 등에 대하여 언급한 바 없던가요

답 : 분신이나 투신 등의 말은 없었고 싸워나가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강경대, 천세영군의 영정 앞에 서면 부끄럽고 하니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등의 얘기를 하였습니다.

문 : 그러면 앞서 진술에서 대학로에서 새벽까지 있었다고 하였는데 무엇을 하였는가요

답 : 북가좌동에서 약 02:00경까지 있다가 내가 불 잡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명륜동까지 택시타고 갔다가 다시 걸어서 대학로에 도착했습니다.

문 : 그러면 어떻게 헤어졌나요

답 : 비도 오고 그래서 좀 외지로 피해 있으니 기설이가 전화 좀 하고 오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한 후에 전화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잠깐 담배를 좀 피우면서 다시 기설이가 전화하던 곳을 보니 기설이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문 : 진술인은 최종학교를 말하십시오.

답 : 1991. 2월 한신대학 경제과 4년 졸업하였습니다.

문 : 비상대책위원회의 임무영은 김기설이 일을 저지르지 모르겠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다고 하던가요

답 : 김기설의 후배로부터 임무영씨에게 전화가 왔는데 기설이가 사고를 칠 것 같으니 기설이를 빨리 찾으라 했습니다.

문 : 후배의 이름을 알고 있는가요

답 : 후배의 이름은 임무영씨가 알까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문 : 임무영의 연락처를 알고 있나요

답 : 현재 연세대 3층에 있는 비상대책위 사무실에 있습니다.

문 : 현재 진술인이 김기설 등과 사는 곳의 약도를 그려 줄 수 있는가요

답 : 제가 자취집 약도를 그려 드리겠습니다. 이때 진술인이 자취집 약도를 그려주므로 조서말미에 편철하다.

문 : 김기설이 신나를 어디에서 구입하였는지 알고 있는가요

답 : 제가 오늘 새벽에 헤어질 때까지는 빈손이었는데 어디서 구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문 : 헤어질 때 김기설은 돈이 얼마나 있었나요

답 : 잘 모르겠습니다.

문 : 당시 술값은 누가 지불하였나요

답 : 제가 지불하였습니다.

문 : 평소 기설이는 담배를 피는가요

답 : 하루 2갑 정도를 피니다.

문 : 술집에서 기설이가 담배를 피울 때 성냥을 사용하던가요 라이터를 사용하던가요

답 : 술먹을 당시 기설이가 담배를 피울 때 라이터를 사용하였는데 1회용이라는 것 외에는 색상 등에 대하여 잘 모릅니다.

문 : 그러면 김기설의 필적을 알고 있는가요

답 : 필적을 봐서는 잘 모르겠으나 기설이의 필적을 사무실이나 자취방에서 찾아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 : 이 얼굴이 김기설이 맞는가요

이때 김기설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진술인에게 제시한다.

답 : 김기설이 틀림없고 다소 이 사진보다는 마른 편입니다.

문 : 헤어질 때 김기설은 어떤 옷을 입고 있었나요

답 : 헤어질 때 긴 팔 추리닝을 입었는데 사라지고 난 후 자취집에 가보니 기설이의 양복이 없어진 것으로 봐서 기설이가 저와 헤어진 후 집으로 가서 양복으로 갈아입고 나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문 : 진술인의 자취방에 기설이가 써놓은 낙서 같은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는가요

답 : 임무영씨의 전화를 받고 자취방에 가왔을 때 편지지 같은 종이의 뒷면에 약 3줄 정도로 "역사의 이정표가 되고자 함은 아니고"라는 등의 말이 써여져 있었습니다.

문 : 그 종이는 어떻게 하였는가요

답 : 명륜동에서 기설이에게 주고 손수 찢도록 하여 기설이가 찢어 없었습니다.

문 : 평소 기설이와 자주 접촉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답 : 전민련 사람들과 가장 많이 접촉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 : 더 할 말이 있는가요

답 : 임무영씨의 연락을 받고 고인을 만나 설득을 하다가 제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놓쳐 결국 김기설이 사망에 이르게 된 데 대하여 가슴 아픕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 진술한 대로 오거나 증감 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 무인케 하다.

진술자 任根率
서기 1991. 5. 8
마포경찰서
사법경찰리
순경 박춘환

* 자취집 약도 <생략> (수사기록 84)
* 사망진단서 <생략> (수사기록 85)

☐자료 가-1-7 (수사기록 86~88)

압수 조서

변사자 김기설에 대한 변사사건에 관하여 검사 신상규는 검찰주사(보) 신인섭을 참여하게 하고 아래 경위와 같이 1991년 5월 8일 19시 42분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134 소재 연세대학교 의료원 1층 회의실에서 별지 목록의 물건을 압수하다.

1991. 5. 8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신상규
검찰주사(보) 신인섭

압수 경위

1991.5.8 17:50경 변사자에 대한 검안을 마친 후 김기설 분신 항거대책위원회(위원장 신창균)측이 서강대학교 총학생회로부터 인계받아 보관중인 김기설의 유류품에 대하여 위 위원회 이수호, 서준식, 인재근, 한상렬 등이 입회한 가운데 김기설의 부 김정열에게 김기설의 사망경위를 규명하는데 필요하니 제출해 줄 있느냐고 문의한 바, 위 김정열이 이에 동의하고 임의 제출하므로 제출받아 압수하다.

압수 목록

| 증제 번호 | 물 건 | 수 량 | 소지자 또는 제출자 주거·성명 | 소유자 주거·성명 | 비고 |
|-------|---------------------|-------|---------------------|--------------|----|
| 1-1 | 곤색 양복상의(미조사 제품) | 1점 | 안양시 : | | |
| 2 | 모나미볼펜 | 1점 | " | | |
| 3 | 88담배 | 1점 | " | | |
| 4 | 5,000원권 지폐 | 1장 | " | | |
| 5 | 100원권 동전 | 2개 | " | | |
| 6 | 유서 | 2장 | " | | |
| 7 | 신나통 | 2개 | " | | |
| 8 | 안경(다리 1개는 파손된 상태임) | 1점 | " | | |
| 9 | 손목시계(로고스 카르체 제품) | 1점 | " | | |
| 10 | 58자 한겨레신문(1면부터 16면) | 4판 1부 | " | | |
| 11 | 갈색구두(불에 탄 상태임) | 1켤레 | " | | |
| 12 | 가스라이터 | 1개 | " | | |
| 13 | 마스크 | 1점 | " | | |
| 14 | 형검조각(불에 탄 상태임) | 1점 | " | | |
| 15 | 박클 | 1점 | " | | |
| 16 | 88담배(반갑) | 1점 | " | | |
| 17 | 일일찾집 티켓 | 2매 | " | | |
| 18 | 500원짜리 동전 | 2점 | " | | |
| 19 | 100원짜리 동전 | 1개 | " | | |

☐자료 가-1-8 (수사기록 162~163)

서울형사지방법원
압수수색영장

영장번호 188
사건번호
사건명 서강대 구내 투신변사
피의자 김기설(가명, 한정덕)
생년월일 미상(25세)
직업 전민연 사회복지장 직무 대리
주거 경기

압수할 물건 변사자 노트 등 자필이
남아 있는 서류일체
수색할 장소 경기

신체, 물건
압수를 필요로 하는 사유 별지와 같음

위 피의사건에 관하여 압수수색을
한다. 이 영장은 야간에 집행할 수 있
다.

본 영장은 1991년 5월 17일까지 유효하다.

이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

본 영장은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남기춘의 신청에
의하여 발부한다.

1991. 5. 8

판사 박형명

집행일시 19년 월 일 시 분

압수할 물건

집행불능사유

위와 같이 처리하였다.

19 . . .

경찰서

사법경찰관(리)

서울형사지방법원
압수수색영장

영장번호 188
사건번호
사건명 서강대 구내 투신변사
피의자 김기설(가명, 한정덕)
생년월일 미상(25세)
직업 전민연 사회복지장 직무 대리
주거 경기

압수할 물건 변사자의 노트 등 자필이 남아 있는 서류일체
수색할 장소 경기

신체, 물건
압수를 필요로 하는 사유 별지와 같음
위 피의사건에 관하여 압수수색을 한다. 이 영장은 야간에 집행할 수 있다.
본 영장은 1991년 5월 17일까지 유효하다.
이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
본 영장은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남기춘의 신청에 의하여 발부한다.

1991. 5. 8
판사 박형명

집행일시 1991년 5월 8일 시 분
압수할 물건
집행불능사유
위와 같이 처리하였다.

19 . . .
경찰서
사법경찰관(리)

0.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

1991. 5. 8 08:07경 서울 마포구 신수동 소재 서강대학교 본관 4층 옥상에서 김기설(25)이 전신에 신나를 뿌려 불을 붙인 후 투신하여 세브란스병원으로 후송 도중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는 바, 위 사건 현장에서 변사자의 유서 2통이 발견되었으므로 변사자의 주거지를 수색하여 자필이 남아 있는 노트 등을 압수하여 그 필적과 유서의 필적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함.

☐자료 가-1-9 (수사기록 160~161)

서울형사지방법원
압수수색영장

영장번호 189

사건번호

사건명 서강대 구내 투신변사

피의자 김기철(가명, 한정덕)

생년월일 미상(25세)

직업 전민련 사회부장 직무 대리

주거경기

압수할 물건 변사자 노트 등 자필이 남아 있는 서류일체

수색할 장소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이하 불상 소재 변사자 하숙방

신체, 물건

압수를 필요로 하는 사유 : 별지와 같음

위 피의사건에 관하여 압수수색을 한다. 이 영장은 아간에 집행할 수 있다.

본 영장은 1991년 5월 17일까지 유효하다.

이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

본 영장은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남기춘의 신청에 의하여 발부한다.

1991. 5. 8.

판사 박형명

집행일시 1991년 5월 10일 13시 30분 - 15시 30분

압수할 물건 "별첨과 같음"

집행불능사유

위와 같이 처리하였다.

1991. 5. 10.

서울지방검찰청 사법경찰관 직무취급

검찰주사보 신광수

"별지"

0.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

1991. 5. 8. 08:07경 서울 마포구 신수동 소재 서강대학교 본관 4층 옥상에서 김기철(25)이 전신에 신나를 뿌려 불을 붙인 후 투신하여 세브란스병원으로 후송 도중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는 바, 위 사건 현장에서 변사자의 유서 2통이 발견되었으므로 변사자의 주거지를 수색하여 자필이 남아 있는 노트 등을 압수하여 그 필적과 유서의 필적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함.

☐자료 가-1-10 (수사기록 164~165)

서울형사지방법원
압수수색영장

영장번호 190

사건번호

사건명 서강대 구내 투신변사

피의자 김기철(가명, 한정덕)

생년월일 미상(25세)

직업 전민련 사회부장 직무 대리

주거경기

압수할 물건 변사 현장주변에 있던 양복상의, 안경, 시계, 신나통 등 유류품 일체

수색할 장소 서울 서대문 신촌 134 연세대학교 구내 유류품 소재지

신체, 물건

압수를 필요로 하는 사유 : 별지와 같음

위 피의사건에 관하여 압수수색을 한다. 이 영장은 아간에 집행할 수 있다.

본 영장은 1991년 5월 17일까지 유효하다.

이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

본 영장은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남기춘의 신청에 의하여 발부한다.

1991. 5. 8.

판사 박형명

집행일시 1991년 5월 8일

압수할 물건

집행불능사유

위와 같이 처리하였다.

1991. 5. 8.
경찰서
사법경찰관(리)

"별지"

0.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

1991. 5. 8. 08:07경 서울 마포구 신수동 소재 서강대학교 본관 4층 옥상에서 김기철(25)이 전신에 신나를 뿌려 불을 붙인 후 투신하여 세브란스병원으로 후송 도중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는 바, 위 사건 현장에서 변사자의 유서 2통, 안경, 시계, 사진 등이 들어 있는 상의 옷과 신나통 2개 등 유류품이 남아 있어 현장을 수색, 유류품 등을 압수하여 타살여부 또는 자살관여자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기 위함.

☐자료 가-1-11 (수사기록 89~90)

서울지방검찰청

수신 검사 남기춘

제목 수사보고(주민등록 분실신고서 입수)

명에 의하여 김기철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안양시 호계2동 동사무소에 임하여 김기철의 필적이 남아 있는 서류 등이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한 바, 김기철이 1989. 10. 11. 작성하여 호계 2동장 앞으

로 제출한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 1매를 제출받아 원본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필적감정을 의뢰하고 그 사본을 첨부하였기에 보고합니다.

1991. 5. 8.

검찰서기 이락규

첨부 : 주민등록분실신고서 사본 1부. 끝.

☐자료 가-1-12 (수사기록 91~93)

압수조서

피의자 강기훈에 대한 자살방조 피의사건에 관하여 검사 남기춘은 검찰주사(보) 라종규를 참여하게 하고 아래 경위와 같이 1991년 5월 8일 18시 00분 경기도 안양시 호계2동 사무소에서 별지 목록의 물건을 압수하다.

1991. 5. 8.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남기춘

검찰주사(보) 라종규

압수경위

전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철이 1991.5.8. 08:07경 서강대 본관옥상에서 분신자살한 사건 현장에서 동인명의 유서 2매가 발견되었는 바, 그 필적이 동인의 자필인지 여부를 확인키 위해 동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인 안양시 호계2동 사무소에 임하여 확인해본 결과, 동인이 1989. 10. 11. 안양시 호계2동장에게 제출한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가 발견되어, 안양시 호계2동 주민등록담당 행정주사 최병관이 이를 임의제시하므로 별지목록과 같이 압수하다.